朝鮮日報 夕刊
七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 印刷人 崔益鎬
發行所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土曜特刊『朝鮮日報』(毎月一回發行) 月刊『朝光』 月刊『女性』 月刊『少年』

東亞製油所 참기름 京城西本町

國民組織再編成
前內閣案을抛棄
白紙로還元、再立案키로

【東京電話同盟】國民總動員組織은 前內閣當時에 잇서서 內務省案을 骨子로하야 假稱『報國會』라하야 八相會議의 意向이 大體로 一致되여 鹽野 木戶、末次三相으로부터 이를 首相에게 中間報告形式으로 說明하엿든바 近衛前首相은 同案에對하야 實意를 表치안허서 有耶無耶裡에 越年하엿는데 新首相 平沼男은 國民總動員組織에 關하야 相當 愼重한態度로써 臨하고잇스므로 結局 前內閣에서 어든 所謂 國民組織再編成은 實際問題로서는 實現不可能이라는 見解를 가지고 從來의案을 放棄하고 白紙로 還元하야 檢討하기로 되여 그 立案을 木戶內相 荒木文相에 委囑하엿다 그리하야 木戶 荒木兩相은 六日 閣議散會後 남어잇서서 協議를行하고 更히 今後의 具體案에 對하야 兩相間에 根本方針을 協議하기로되엿다 그리고 荒木文相의 意向으로서는 結局 國民精神中央聯盟을 改組하야 人的要素에 重點을 두고 物心兩方面을 活用하는것이 가장 實現可能性이 잇다고 하고잇스므로 迂餘曲折을 經한後 國民組織은 結局 이러케 落着하지안홀가보인다

閣議

【東京電話同盟】七日閣議는 午前十時四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 平沼首相以下 全閣僚出席 石渡藏相으로부터 昭和十四年度各特別會計豫算案에關하야 詳細한說明을行한 結果 原案대로 異議업시 이를決定하고 當面問題에關하야 意見交換을行한後 午後零時五分 散會하엿다

文官制度改正案等 今議會엔不提出

【東京電話同盟】前內閣以來의懸案인 貴族院改革法 議院制度及文官制度改正에 對하야는 前三者는 議會制度審議會의 答申을어더슴뿐으로 그取扱에 關하야는 아직 決定치아니하엿는데 休會後 議會再開도 切迫한것과 各方面에서 論議되는點에 鑑하야 今議會에는 提案을 保留할豫定이다 文官制度改正에 關하야는 法制局原案을 再檢討한後 平沼首相과 近衛樞府議長間에 協議를 行하야 根本的方針을 決定한다음 懸案解決에 나아갈모양이다

【上海六日發同盟】事變中의 近衛內閣總辭職은 國民政府에對하야 相當한反響을齎來한바 後繼內閣의急速한實現은 國民政府에對하야 批評할餘裕를주지안헛스며 다못 平沼男이 首相에就任한것은 一般에게 獨裁强化乃至對支政策의積極化라는 印象을投影하고잇다 卽五日重慶大公報는 平沼男을『日本파시즘의父』라하고 今回內閣更迭은 日本自由主義의 失敗와 重臣獨裁政治의 成立을 意味하는것이라고 斷定하고잇든바 一方消息通間에서는 設令平沼男이 過去에잇서서 파시즘的傾向이 잇섯다해도 現在에는 中庸의政策으로 轉換하엿다고 觀測하는模樣이다 그러나 對支政策에關하야는 積極化할지언정 消極化하지는안는다는 見解가 壓倒的으로 國民政府는 如斯한見解下에 더욱 對日抗戰團結力强化宣傳을 開始하고잇는바 對支政策積極化에 伴하야 어느때이든 政策은 必至라고보아 日本의經濟的困難이 加重될것에 얼마큼 期待를가지고 잇는側도잇다

(獨裁政治의成立 新內閣과大公報批評)

海軍、沙灣攻略에 陸軍部隊를掩護

【上海六日發同盟】艦隊報道部六日午後四時發表 南支方面에서 海軍珠江部隊一部는 再昨四日未明 沙灣攻略陸軍部隊의 沙灣水道强行突破를 掩護한外 海軍陸上掃蕩部隊는 陸軍部隊와 緊密한 聯繫下에 同方面掃蕩戰에參加 沙灣水道入口附近에서 敵守備隊及 大型軍用舟艇數隻을 攻擊하야 潰滅케하엿다

第九戰區總司令에 薛岳을任命

【上海七日發同盟】支那消息에依하면 支那軍 最高當局은 疊者 蘭東方面의 第四戰區副司令에任命된 薛岳을 今番에 다시 湖南中心의 第九戰區總司令에 任命하엿다 國府는 抗戰第二期에들어 軍政系統一의見地에서 薛岳을 湖南省主席에 兼任시킬터로 近日中에 그正式發令을 보리라한다

四川雲南一帶의實相
巴里某大新聞特派員視察記

【河內六日發同盟】蔣政權의 二週間에 亘하야 重慶、昆明一帶를 視察하고 五日 河內에歸來한 巴里의 一大新聞特派員이 言하는바에依하면 四川雲南方面의實情은 이제야 混亂의極에 達하고 重慶政府는 蔣政權으로부터 離脫 國共提携도 緊張의 危에빠저 蔣政權은 이제 大動亂을 招來할 것이라고 左와如히傳한다

一、汪精衛의脫出밋 和平聲明은 國府內部에 多大한衝動을 주엇스며 要人中에도 다시二名의 脫出希望者가잇는바 方今警戒嚴重으로 말미아마 決行치못하고잇스며 그以外 數名의要人도 動搖하고잇다

一、李宗仁、白崇禧도 蔣介石과 意見이 맛지안허서 廣西防備를爲하야 廣西로 手兵을引率하고 歸來하려고하고 蔣의留任懇請에도 不應코 廣西獨立의徵兆를 示하고잇스며 雲南의龍雲도 蔣政權에 反抗態度를 示하고 中央으로부터의 派遣兵을 無視하고 雲南의法幣化도 方今 進捗치안코잇다

一、國共兩黨間은 表面圓滿하나 實權은 오히려 共產黨에잇다 彼等은 長沙뿐아니라 重慶도 讓却하라는 內命을發하엿고 蔣介石은 이에對하야 抱懷하고잇스며 또共產黨은 公公然히『我等은 安那의代表인 國民黨과 一時提携하고 잇슬뿐이다』라고 放言하고잇스므로 언제分裂할지모르는 形便이다 西北地方은 全혀 共產勢力下에잇서서 蔣은 손을댈수도업다

一、四川의產業開發은 말뿐으로 着手치안흐며 工場移轉은 보잘것업고 昆明에도 工場가튼것은 보이지안헛다

一、奧地의人心은 益益不安하야 時時 避難民과 土着民과의 軋轢이 甚하며 避難民은 疲弊되고 食物入手도 極히困難하야 當局도 處理에窮하고잇다 强制募兵은 民衆怨嗟의 焦點이되여 形勢는 不安을 大化하고잇다

一、昆明市에 多數商貨가잇는데 飛行機가튼것은 거의 보이지안헛다 그리고 輸入된트럭은 外에 一般으로 使用하고잇다

一、트럭輸入은 最近緬甸公路가 가장盛하며 여기에서 約五千臺의트럭을 輸入할計畫이라고 하는바 緬甸公路에서온 貨物은 全部 조車로 到着한때는 相當히毁損하야 荷物을 積荷하야 곳에올수업는 狀態이다 但輸入하는量은 佛印經由의 數倍에 達하고잇다

一、昆明飛行場에는 飛行機二四臺밧게 업섯다 佛蘭西人敎官은 全部給料不拂로 말미아마 歸還하고 現在는 十名의 米國人敎官이잇슬뿐으로 이들은 그냥놀고잇는形便이다 이外에 傳하는바와 가튼 交通線建設根據地가잇다고는 듯지못하엿다

一、要컨대 모든情勢는 이제야 國府의 抗日政權을 明瞭히告하고잇다

汪의逮捕查辨을
余漢謀等蔣에要請
汪은依然河內에滯留

【香港七日發同盟】張發奎、余漢謀其他 第四戰區의 全將領은 五日附로써 國民政府主席 林森及 軍事委員會委員長 蔣介石에게 汪精衛의逮捕查辨을 如左히電請하엿다

三十日附 汪의通電은 和議에籍口하야 公的投降의 野心을 表示하려는것이다 다만 失地를 放棄하고 團結을 破壞하고 是非를顚倒하려는것이다 抗戰을阻害하는데 이러케 汚行을 綜合하면 賣國叛黨의罪惡은 明確하다 따라서 職務撤職에만 그치지말고 汪을 逮捕查辨에 附하야 黨을肅淸하고 士氣를 一新하라

【河內七日發同盟】重慶을脫出하야 昆明經由로 舊臘二十六日 河內郊外某處에入한 汪精衛는 其後 香港、上海等에 赴하엿다는說이 傳하는데 實際는 依然히 그隱家에잇서 外界와의 交涉을 避하고 專心今後의對策을 講究하는 模樣으로 方今그와함께 그隱家에 滯在中인人物은 夫人陳璧君及陳立夫 曾仲鳴 周佛海外 一名이다 支那總領事館에서는 祕密히人을派하야 隱家에配置하고 嚴重히行動을 監視하며 佛印當局도 祕密裡에 身邊을 警戒하는一方 刺客의危險도 豫想되므로 注意하고잇다

佛伊關係緊迫으로
지부티港에增兵

【마르세이유六日發同盟】佛伊關係惡化에 備하야 지부티防備에當할 佛蘭軍第二次先遣部隊 세네갈狙擊兵一個大隊는 六日午正 佛商船아-스랜호로 一路지부티港으로向하엿다

北阿植民地首腦와 달佛首相協議

【알제六日發同盟】地中海沿岸의 佛領各地方을 巡遊中인 달라디에佛首相은 六日午前八時三十分 알제市에到着 佛領北阿弗利加植民地의 文武官首腦와 協議를行하엿다 伊太利의 佛領植民地要求에 基하야 佛伊關係가 緊迫되엿슴에 이協議內容은 자못重要視된다

議會終了까지 鹽野、八田兩相兼任

【東京電話同盟】政府는 組閣에當하야 鹽相은 鹽野法相의兼任 又拓相은 八田商相의 兼任으로 하엿는데 이는 適當한 時期를 기다려 專任을補充할 意向으로 于先 今議會終了까지는 現情대로 進行키로 決定하엿다

西班牙 프랑코軍戰果

【빌바오六日發同盟】카탈로니아戰果의 프랑코軍은 바르셀로나攻略을命하고 活潑히總攻擊을開始하엿는바 爾來 프랑코軍이 獲得한戰果에對하야 六日 프랑코軍當局은 如左히發表하엿다

一、占領地域 一千五百平方킬로
一、捕虜 二萬六千名
一、擊墜飛行機 八十八臺
一、捕獲同 二臺
一、人民戰線麾下의 二市及部落多數를占領
一、捕獲戰車 八臺

蕪湖警備隊 九里山敵擊破

【南京七日發同盟】○○部隊의 蕪湖警備隊는 正月初 敵正規軍六十三師가 再次蠢動을開始하야 九里山(蕪湖西方)附近에 進出하엿다는 報에接하고 二日부터 行動을開始하야 同三日 九里山敵約一個大隊를 擊破하고 四日 寧國西方 團山鋪附近의 堅陣에據한敵兵十三師一個團을 擊破하엿스나 五日까지의戰鬪에서 敵遺棄死體六百五十 機關銃七 체코機銃十、小銃九十八 其他彈藥手榴彈多數에 達하고 捕虜도 四十八名의 多數에達하엿다

公債四億圓 七日發行決定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 政府는 七日 公債四億圓을 左記要項에依하야 發行키로決定하엿다

一、公債名稱 支那事變國庫債券『卜』號
一、發行額面 四億圓
一、發行價格 百圓에對하야 九十八圓
一、發行日 昭和十四年一月七日
一、償還期限 昭和三十一年四月十五日까지
一、利率 年三分五厘
一、利子支拂 四月十五日、十月十五日二回
一、初期利子 昭和十四年四月十五日渡(額面百圓에對하야 九十四錢)

004391

十一日以後 定例閣議日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當分間 每日午前十時부터 閣議를열기로되엿는데 七日閣議에서 이것은 十日로써 中止하고 十一日以後는 定例日을 設置키로 決定하엿다

岡田文秀氏 厚生次官으로發令

【東京電話同盟】厚生次官後任及 이에伴한 異動은 七日閣議로서 如左이決定 上奏御裁可를한後 發令되엿다

傷兵保護院副總裁 岡田文秀
任厚生次官(一等)
厚生省體力局長 兒玉政介
任傷兵保護院副總裁

法相、首相과會談

【東京電話同盟】鹽野法相은 七日 閣議散會後 남어서 平沼首相과會見 今後方針에 關하야 여러가지로 協議하엿다

八面鋒

新內閣初施政에 國防會議設置說. 往年의 國本社主 本을 防으로 運用도時宜.

◇

國民黨副總裁로 孫科就任說 狼藉. 國共의 混血兒得意之標도 제대로時宜.

◇

第二次爆擊聲明 汪精衛 發射를準備, 爆擊의妙諦인 連爆으로 反對陣攪亂도時宜.

◇

米國의 明年度國防豫算、四十餘億圓巨額이라니、武器業者景氣回復策으로는 時宜라고해둘가.

◇

皮革金屬製品도 價格指定, 中小商人高利價를 整理方針. 時宜中엔 群鷄一鶴.

英首相、自治領相等
對日經濟報復案協議

【倫敦六日發同盟】췜벌린首相은 六日午前 首相官邸에 할리팍스外相 사이먼藏相밋 맠드날드自治領相兼屬領相을 招致 重要協議를行하엿다 하바스通信社倫敦支局報道에依하면 이는 日本側의 在支外國權益壓迫의 對抗策으로서 經濟報復案이 提起되야 그具體策으로 英國本國及英帝國內各地에 輸入되는 日本品에對한 特別課稅問題가 附議되엿다고 傳한다 그런데 이報復案은 卽時發動되는것이아니라 日本과의 間에 平和解決策이 絶望되고 또米國이 英國과의 同一步調를 取할境遇에 비로소 具體化될것이라고한다

蘇聯將校十餘名 北支遊擊隊再編成

【濟南六日發同盟】北支에잇서서의 支那軍遊擊隊를 八路軍의全面的統制下에 再編成하고저 黨軍에派遣된 蘇聯將校 十餘名은 去十月末 山西를經하야 山東省南部單縣及 江蘇省北部豊縣에至하야 方今 各遊擊匪와 連絡하야 再編成에 狂奔하야 共產政治學校를 軍事敎育機關으로 組織化하고잇다고傳한다 最近更히 河北山東方面의 遊擊軍 其他共匪와 合流한 第二路軍新編에 着手한 模樣인바 元泉部隊의 吳橋方面淸掃에依하야 工作도 大打擊을바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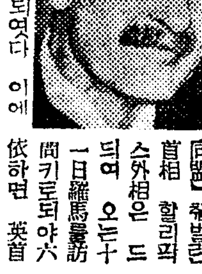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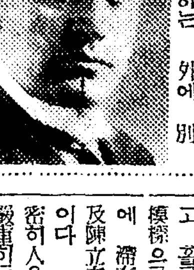
殘匪掃蕩戰果

【太原六日發同盟】山西其後의 殘匪掃蕩狀況은 左와如하다 宗谷部隊의 一部는 四日午後三時半 人組山東南方에서 迫擊砲를가진 約百名의 敵을急襲 이를潰滅케한後 迫擊砲全部를鹵獲하엿다 三俠鎭(鄕寧北方)에잇는 宗谷部隊의 一部는 平原村附近에 蟠居한約二百의敵을 急襲하야 北方으로 潰走케하엿다 敵의遺棄死體二〇이다

獨裁政治의成立 新內閣과大公報批評

(本文은 上記 【上海六日發同盟】 參照)

英首·外相訪伊日程
巴里서佛首相과도會談

【倫敦六日發同盟】췜벌린首相 할리팍스外相은 드듸여 오는十一日羅馬를訪問키로되야 六日 그日程이發表되엿다 이에 依하면 英首相外相은 羅馬訪問途中 十日巴里에서 달라디에佛首相、봉네外相과도 會談할터로 十一日夜羅馬에到着、十四日까지 三日間同地에 滯在하야 伊太利朝野의 歡迎을 바들터인데 뭇솔리니首相과 晩餐을함께하는 外에 別段公式會談이 豫定되여잇지 안흔은 注目된다 (寫眞은 췜英首相(右)과 무伊首相)

쉐匈兩軍衝突經緯
匈政府非公式으로發表

【부다페스트六日發同盟】匈牙利의 東北國境 문캇치町에서 勃發한 쉐코匈牙利兩軍衝突事件은 六日午後에 이르러도 解決되지 안코 六日午前現在에잇서서 兩軍間에 十四名의 死者를내엿슨바 匈牙利側은 六日非公式으로 事件經過에對하야 左와如히發表하엿다 루테니아地方駐屯의 쉐코軍은 六日午前四時三十分 裝甲自動車三台에 分乘하야 匈牙利國境線을 突破 오로배-ユ村을 占領하고 機關銃을 掃行하야 문캇치町으로 進擊하므로 匈牙利國境守備隊는 이에對하야 射擊을加하야 裝甲車一臺를 鹵獲하고 搭乘者를 捕虜로하엿다 문캇치町에서 憲兵及警官隊가 出動하야 肉彈戰을 演하게되엿는바 午前五時에至하자 쉐코軍은 문캇치町에對하야 砲擊을 開始하야 砲彈은 호텔 市廳舍 劇場 民家等 八個所에 命中하엿다 午前十時 쉐코軍은 再次砲擊을 開始 今後繼續하야 砲擊을 行하고잇다 쉐코軍은 다뉴브河를 渡河하려 하고잇는바 匈牙利側은 이를 擊退하엿다 그리고 現在의 死者는 匈牙利軍九名(內士官四名 兵五名) 쉐코軍은 五名이다

國境方面動員說
쉐政府事實否認

【프라하六日發同盟】쉐코政府는 문캇치事件을 利用하야 國境方面에 當分間 一部軍隊動員을行하엿다는說이 傳하는바 쉐코政府는 六日 同報道를 否定하고 如左히 言明하엿다 國境에 一部動員을하엿다는 外國側의報道는 事實無根이다 反對로 昨年秋 주데텐問題때에 總動員한 쉐코兵은 이미 動員解除를 거의다하엿다

匈牙利政府 獨伊注意喚起

【부다페스트六日發同盟】匈牙利

獨政府重大視 쉐匈衝突事件을

【伯林六日發同盟】獨逸政府는 匈牙利國境 문캇치町에서 衝突事件의推移를 重視하고잇는데 特히 獨伊兩政府의 仲裁에基하야 去十一月二日 匈牙利쉐코兩國의 新國境의 最終的確定을 維持하고잇는 事實에서 伊獨兩政府는 匈牙利쉐코兩國에 右의協定의 精神을 無視하고 今回의不祥事件을 惹起한것은 매우 遺憾이라하고잇다 獨逸政府는 事態가 益益惡化할 境遇에는 匈牙利쉐코兩國政府에 對하야 强硬한提議를하야 위協定을 尊重하도록 要求할意向이라고 傳하는바 現在까지에는 이事件은 國境地帶一部의 不逞分子에依하야 惹起된것으로서 匈牙利쉐코兩國政府가 直接關係하고 잇다고는 생각지안는模樣이다

쉐코軍又復 匈代表를亂射

【부다페스트六日發同盟】쉐코軍代表는 六日午後에 匈牙利側에 對하야 문캇치事件 現地交涉을 提議하야 事態는 若干緩和된듯 보이든바 六日午後 匈牙利側代表가 交涉次 自動車를 搭乘하고 現地에 到着하자 쉐코軍은 突然 機關銃으로 亂射하야 匈牙利代表는 頭部에 負傷하게되엿다 이로 因하야 事態는 惡化하엿스므로 急報를 接하고 匈牙利軍은 急遽現場에 增援隊를 派遣하엿는데 쉐코側은 이에應하야 部隊를 增派하는同時에 午後二時에 이르러 再次문캇치町에 對하야 砲擊을開始하엿다 그러나 匈軍은 문캇치町前方의 라토르자川의線을 死守하야 쉐코軍의攻勢를 防止하고 交戰을 繼續하고잇다 그리고 匈牙利側은 交戰結果 쉐코軍의 戰車一臺、迫擊砲一門 機關銃一挺을 鹵獲하는 同時에 쉐코兵多數를 捕虜로 하엿는데 匈牙利側이 捕虜의 供述에 基하야 非公式으로 發表한바에 依하면 쉐코軍은 第四聯隊에 屬하는 中隊로 匈牙利領을 越境하엿다고한다

쉐、匈衝突事件
伊紙는匈側見解支持

【羅馬六日發同盟】匈牙利쉐코國境 문캇치町의 衝突事件 勃發의報는 伊官邊에 多大한衝擊을 주엇는바 政府는 아직 公式意見 發表를 保留하고잇다 伊太利各紙論調는 一般으로 匈牙利側의 見解를 支持하야 有力紙는 六日 문캇치事件을 비롯하야 最近의 匈쉐國境紛爭은 모두 쉐코의 挑發行爲에依하야 惹起된것이라하야 쉐코側을 非難한것이 注目된다

문캇치事件은
루政府의策動
波蘭官邊의觀測

【華沙六日發同盟】波蘭官邊은 今回의 문캇치事件의 發生은 쉐코의 루테니아自治政府內의 不逞分子의策動에 基한것이라고 解하고 루테니아地方이 匈牙利領으로 編入하지 안코 現在와가티 쉐코의自治州로되여잇는限 今後에도 匈牙利 쉐코兩國間의 紛爭은 끈어지지안코 中歐政局은 依然不安定할것이라하야 루테니아地方의 匈牙利編入에依하야 波蘭、匈牙利共同國境設置要求를 反復하고잇다

쉐匈現地交涉 匈系이로다通信發表

【부다페스트六日發同盟】문캇치町事件에關한 匈牙利쉐코兩軍代表의 現地交涉에 關하야 匈牙利半官通信社는 六日 如左히 發表하엿다 쉐匈兩國軍代表間에 交涉이 進行中인바 쉐코側은 문캇치에 大彈을 放하고 또 문캇치를 包圍한 쉐코軍은 兩翼에 增援部隊를 集結하게되엿다 다음午後二時十分 쉐코側軍隊로부터 大佐及 中尉가 軍使로 문캇치에 到着한바 砲擊事件에 關하여는 何等 알바업다고 言明하야 交涉을 繼續中이다 그러다 쉐코軍砲兵部隊는 문캇치에 砲擊을한 理由에對하야 說明을 하지안코 쉐코軍은 攻擊을 中止할 意思가 限이업다고 放言하엿다 그리고 문캇치砲擊에 依하야 匈牙利兵一名 兒童一名의 負傷者를 出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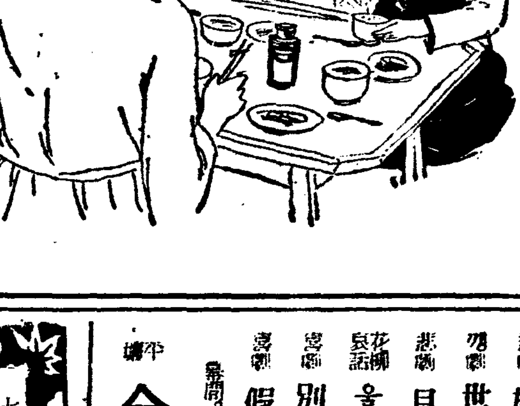
一切責任은쉐코에 匈牙利側非公式發表

【부다페스트六日發同盟】匈牙利政府는 쉐코軍의 越境攻擊事件의 推移를 重視하고 六日 쉐코政府에 對하야 嚴重抗議를 提出하엿는데 匈牙利側은 六日午後 事件의 責任은 全혀 쉐코側에잇는旨를 非公式으로 如左히 發表하엿다 쉐코正規軍과 裝甲車機關銃隊가 戰鬪에 參加하야 그結果 匈牙利軍에 士官四名及兵員若干名의 戰死者를 生하게된 것이므로 문캇치事件의 責任은 어데까지 쉐코政府에잇다 그리고 쉐코側行動은 匈牙利에 對한 攻擊에 끄치지안코 匈牙利쉐코國境確定에 關한 協定者인 獨逸伊太利兩國에 對한 攻擊을 意味하는것이다 문캇치町은 最近까지 쉐코領인바 昨年十一月의 協定에 基하야 우스호로와함께 匈牙利側에 割讓된것이다

匈牙利公使 쉐코에嚴重抗議

【프라하六日發同盟】匈牙利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프라하駐在 匈牙利公使는 六日午後四時 쉐코外務省에 추발코프스키外相을 訪問하고 今回事件에 關하야 쉐코政府의 責任을 糾彈하는 嚴重抗議를 提出하엿다 【프라하六日發同盟】匈牙利政府는 六日早曉 쉐코東北國境地方에서 일어난 匈牙利、쉐코兩國衝突事件의 責任은 極度로 重大하고 쉐코側에잇다고 하엿다 이에 對하야 추발코프스키外相은 方今 眞相調查中이라는旨를 如左히 말하엿다 今回事件에 對하야는 嚴重히 現地調查를 行하야 責任의 歸趨가 明確될때까지는 무어라말할수업다 다만 문캇치市街에서는 쉐코側交涉委員과 匈牙利側交涉委員이 共同調查를 行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엿다 一方 事件의當事國인 쉐코의 루테니아自治政府側은 匈牙利政府가 今回의 紛爭責任을 질것이라고하고잇다 本問題의 發端은 쉐코國境警備의 憲兵三人이 쉐코領內에서 突然 匈牙利兵에게 狙擊되여 負傷한 때문이라고 主張하고 匈牙利側은 이를 反駁하고잇다

입맛을돗아주고 위장을튼튼히하는



病床에 오래누어계신분이나 허약하신분은 대개 입맛이 떠러저서 음식물을 잘 잡수지 못하게되야 병은 점점중하게되여가며 쇠약이 더욱 심하게되야 오래끌게됩니다

이것은 사람몸에 가장필요한榮養素 비타민비-가 不足되여잇는까닭에 胃腸의기력이 업서저서 그렇게되는것이니 이不足된 귀중한영양소 비타민비-를 보충식혀주는 「에비오스」를 련복하시면 弛緩된胃腸의 組織을 바로잡어서 병근원에 작용하며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식혀 줍니다

식욕

에비오스는 食慾을돗아주나니 이것은 食慾促進비타민이라고 불녀잇는 複合體(비타민끈푸레ㄱ스)가 自然物中 가장 풍부히 가지고잇는까닭에 복용하신때부터 곤구미가 돗아서 음식을잘잡수시게됩니다

소화

消化液의 分泌를 왕성게하야 먹은것을 곳消化식혀버림으로 배속이늘편하게됩니다 헛배가 불느든가 속이 쓰린법이없고 위산이나 消化劑처럼 『인』이백이는법이 절대로없고 순조로히소화가 잘됩니다

영양

종래의 영양제처럼 먹은 그分量잡엇치만 돗는것과는 全然다르니 보통잡수시는음식물을 全部 영양화식혀주어서 모도 살과피로 가게하고 병환으로생긴 영양부족을 전부보충하여줍니다

변통

변통이 좋지 못하시다고 흔이 사용하시는 一時的 설사약과는 근본적 으로 다르니 자연적으로 잘消化된것을 순순히 나오게하여주어서 변비로인하야 생기는 모든병을 예방하며 늘 기분을상쾌케하여주고 배속이편하게됩니다

三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그외粉末도잇습니다
全道藥房에서販賣함

馬越藥學博士創製
橋谷農學博士監製

삿보로·아사히 유니온·에비스 麥酒釀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錠スオビエ
에비오스정

EB-K-89

六、七兩日
東洋舞臺大公演
上演番組
悲劇 旅人宿 全一幕
悲劇 世紀의人形 三幕五場
悲劇 目擊者 二幕三場
喜劇 울고웃는人人 四幕
喜劇 別莊과奇緣 一幕二場
喜劇 假社長 全一幕
幕間 쇼ー 쌍쌍 녀센쓰
金千代座

松竹映畫
七日より四日間
大阪毎日 東京日日 連載小說 新春第一回特作
雨降り峠 原作 横溝正史 監督 佐々木康 主演 坂東好太郎 伏見信子
妻の魂 新興新東京作品(二) 監督 曾根千晴 主演
美人床 松竹大船作品 原作 山本周五郎 監督 蛇田弘 主演 高峰三枝子
ニュース
キネマ

◆靑春座大公演◆
新春一月一日부터
南宮春作
◆호ー프◆
위트홈 ◆全一幕
林仙奎作
◆大時代劇 酒泚와水
落花岩 ◆全四幕

白鶴의史蹟中에서가장애끗는史實을뒤저서아름다운물것으로되어거노흔悲史悲劇으로보는이로하여금옷깃을여미고머리를숙이게하야가장갑잇는人生의눈물을자아내지안코는마지안는 大家玉篇입니다

松旭齊天勝 一座公演◆
新春一月一日부터
府民館에서
東洋劇場
電話 光化門 2154(劇場現場用) 3640(事務室專用)

◇松竹大船作品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毎日晝夜二回 一時七時始映
一月七日부터九日까지
叱へろ銀ちゃん
監督 齋藤寅次郎
主演 坂本武、飯田蝶子
◇極光映畫社第一回作品全發聲版
漁火(いさりび)
監督 安達水 島耕保次郎
主演 朴齊慶、羅雄
◇獨乙ウファ特作全發聲日本版
探偵活劇 白日鬼
監督 クルトケロン
主演 ハンスアルバス ペーターローレ
大週 朝やけ 衣裳花嫁
京城新堂町 (電話本局)五六七七番
新富座

一月七日부터九日까지
毎日晝夜二回 晝一時夜七時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サンフィルム社提供
モンテイ大陸橫斷
モンテイバンクス氏活演
▲松竹大船作品
新道 前後大篇
原作 菊池寬
監督 五所平之助
主演 田中絹代、上原謙 川崎弘子、佐分利信 三宅邦子、齋藤達雄 高峰秀子、吉川滿子 桑野通子、岡村美子
逃すな 松竹大船スター總出動特作品 漁火、叱へろ銀ちゃん、白日鬼
桃花町 電話 龍山(二)三一二
桃花劇場

銀盤우의制覇氣魄
六都市猛將意氣冲天!
五百米에崔君、五千엔任君一着
第四回都市對抗氷上競技今日午後開幕

전조선의중요도시에서 추려뽑은 은반의맹장들이 모여서 영예의 패권을 다투는 제사회도시대항 빙상(都市對抗氷上)대회는 조선 빙상경기연맹주최와 본사운동부 후원아래 금칠일 오후한시부터 청량리링크에서 성대하게 열리엇다 한눈의명예를 질머진 각지용사들은 개막을기다리는 흥분된분위기에차여 각각대를지어 가벼운연습을 마치고 정각에입장식이열리니 국기게양이잇슨후 황거요배에뒤이어 동대회회장대리로 매택(梅澤)씨의 개회사가 잇슨다음 본사사장 방응모(方應謨)씨로부터 해마다 이대회에는 여러분을 대하게되는데 그씩씩한 체구와괄발하기게에 경의를표하는바이다오늘이자리에모인신의주(新義州)안주(安州)함흥(咸興)강계(江界)평양(平壤)등지의건아들과 중앙의 경성、개성의 용사들은 얼혹이 우리 빙상계로는 이만한 충실한 실력을 가진선수들이 모혀보지못한만치 큰기대를가지고잇다 더욱이 내지추방(諏訪)에서 열린 전일본화생대회에서 바로어제 여러분의동지들이 패권을차엿다는 쾌보를전해주고잇거니와 제군은보다더 조흔기록을수립하기를바란다 라는 의미의축사가잇슨후 황국신민의서사를제송하고 심판장정상이(鄭商熙)씨의 주의설명으로 식을마치엇다 벽두오백머돌타입레ㅣ스로부터개시하엿는데 빙질은조흐나바람이강하야 조흔기록은바랄수업섯다

(사진은 경기광경、 원내는 본사사장의축사광경)

五百米(세퍼레ㅣ트코ㅣ스)

【一組】1金龍鎭(安州)四九秒F 2石龍九(平壤)五三秒四
【二組】1任東奎(新義州)四九秒
大(李明天으로■■)
【三組】1金吉■(咸興)五三秒F 2林炳俊(安州)五七秒五
【四組】1崔龍振(京城)四八秒F 2許繼日(平壤)五〇秒五
【五組】1申東一(京城)五四秒2 金光洙(安州)五六秒五
【六組】1沈昌燮(新義州)五二秒九 2金世龍(咸興)五四秒四
【七組】1李成鎭(新義州)五二秒 2尹承衣(江界)五四秒

【五百米着順】
1崔龍振(京城)四八秒
2金龍鎭(安州)四九秒
3任東奎(新義州)四九秒六
4許繼日(平壤)五〇秒五
5李成鎭(新義州)五二秒

【得點】京城五點 新義州四點、安州三點 平壤二點

五千米(오픈코ㅣ스)

【一組】1朴■■(平壤)九分五五秒七 2金■■(新義州)九分五六秒二 3李相天(京城)一〇分〇六秒 4■■■(平壤)一〇分四一秒
【二組】1任東奎(新義州)九分五二秒二 2柳得浩(平壤)九分五三秒 3金■■(安州)九分五四秒一 4沈昌燮(新義州)九分五六秒三 5金■■(咸興)九分五六秒七

【五千米着順】
1任東奎(新義州) 2柳得浩(平壤) 3金■■(安州) 4朴■■ 5金■■(新義州)

【得點】平壤六點、新義州六點

家庭用炭公定價格大幅引下
內地塊炭數種을除外
四十餘種 一圓乃至三圓 低廉
煉炭은從前價格踏襲
京城府一圓에限定、地方은追後發表

경기도에서는 석탄에대한종래의공정가격에 개정을가하야 가격의 대폭인하를단행키로 결정 오는십팔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엿다

이번개정은 가정용석탄과연탄의 두가지인데 우선 가정용탄에대해서보면

(一) 家庭用石炭

내지탄 이십칠종、조선탄이십일종합계 사십팔종인데 그중내지탄두서넛이 오륙십전 정도로올랏슬뿐이다 기타는전부 일원내지 삼원정도로내렷다

그중에서는 함흥괴탄(咸興塊炭)과가든것은 한돈에삼원육십이전이나 나추어결정되엇다

석탄의 공정가격개정에 대해서는 지난달 이십칠일 총독부물가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유선괴탄(遊仙塊炭)후국세중괴탄(豊國洗中塊炭)암기세중괴탄(岩崎洗中塊炭)의 삼종류에 한한전조선일률적인 개정공정가격을 발표하엿슬뿐 기타 여러종류에대해서는 미처 손을대지못하고잇섯는데 이번에 경기도가 용약 무려사십팔종에 걸처서 일대개정을 단행한것이다 이제그개정요점을 적어보면

(1) 사매、소매의 판매가격을 상세히결정한것

(2) 가마니의용량(容量)으로종래는 육십키로엿든것을 사매소매를통해서 엽네가마니 칠십일키로반으로정하여 써 문매(問賣)와의 가격의차이를축소시킨것

(3)종래 반돈이상에 한하야 도매가격에 준거하던것을 이번에는 사분지일돈으로 이것을내린것

(4) 경성부내에서도 구시내와 신시내와를 구별하여 신시내에서는 구시내의 시세에다가 운임을가산키로하고 이를따로히 추후 결정발표키로한다

(二) 煉炭

그리고연탄(煉炭)에대해서는 가격으로 보아 종전의 공정가격그대로답습하엿스나 종래에는 이철(二六) 삼철(三六)탄은 일천이백개를 한돈으로 잡어왓섯스나 사실상 일천이백개가 한돈이못되에 빗취어이번에는 돈을 표준으로 하지안코 개수를 표준으로하고 가격을정한것 그리고 석탄과 마찬가지로 사분지일돈제를 실시한것이 종전과다르다 그러나 갑슨 차가업다

(三) 이상개정가격은 우선경성부일원에 한해서 적용하기로 되엿고 도내다른 지방치는 이것을 표준으로하고 거기다가다시 운임 기타를 가산해가지고 추후로 결정발표할것이다

志願兵訓練生
今年度 二百名增募
前期後期合六百名

총독부 육군병지원자 훈련소에서는 작년도에 생도사백명을 모집하엿섯는데 금년도에는 이백명을 증원하야 전기 후기삼백명식 양육백명의 생도를모집하기로결정하고 다음과가튼 모집요항을 공시하엿다 이와가티 이백명이나 증원하야 모집하게된것은 이지원병제도 실시의초년인작년에 응모기간이 극히단시일이엿슴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정원사백명에 대하야 삼천여명의 다수에 달하엿고 구두와서면으로 지원한것을 합치면 실로 오천여명을 돌파하는 열성이 표현된것에 비추어 될수잇는대로 다수 유위의 인재를 선발하야 내선일체의 참된 행자(行者)를 육성하고저하는 당국의 주지에서 조선군과 총독부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한다음 결정한것이다 이와가티다수 지원자의 열성에 대응하야 내선일체의 큰근원이될 다수의 인적자원을 육군에 보내는 목적으로 채용생도수의 증원이결정되엿슴에따라 훈련소도 더욱 확장하게되엿다

응모기한은 이월십일까지인데 각부청지소(府廳支所)경찰서장에게 원서를 제출하면된다 그리고 전기생은 오월상순에 입소하고후기생은 십이월상순에 입소하기로되엿다

校舍增築 施設改善

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陸軍兵志願者訓練所)는 금년부터이백명을 증원하야 육백명을모집하기로결정됨에따라 숙사와교실을증축하는 동시에 내용을조터 충실히하고자 제반시설을 개선하며 기구를확장하기로 되엿다 이에대한 예산은 약십만원으로 이미대장성에서 통과까지되엇는데 숙사、교실증축비가 약오만원、내용충실시설비가 약십만원 직원증원봉급기타가 약

會社重役夫人의
疑問의自殺事件
身病悲觀自發作的行爲

설기분이 아직도 식지안흔유일밤에 대회사간부 부인이 원인모를자살을하엿다

부내청엽정(靑葉町)사정목일백삼십이번지 만주 광산주식회사(滿洲鑛山株式會社) 길림지소장(吉林支所長)내등직일(內藤直一)의처 마사꼬(正子)(■)가유일오후여덟시경 시장에반찬꺼리사러나간다고 나간후 밤이느도록 드러오지안흠으로 집안사람들이 이상히역이고 동엽서경에 소관공사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는데 동서에서 직시 각서에 수배를 하는일방 청엽정일대를 수사한결과 칠일 오전두시경에 효창원(孝昌園)압 동엽섭제실팔번지 수양단(修養團)내 빈집속에서 조바창엽해서 허리끈으로 목매죽은시체를 발견하엿다

동서에서는 금목(今木)사법주임이하 개원이직시 출동하야검시해본결과 타살혐의는 별로업고 자살한것이 확실하므로 시체를해부하지안키로 하엿는데 자살한진용에는 시장에서사온『시금치』가신문지에 쌋채 떠러저잇고 그집서얼마아니 떨어저잇는 효창원 공동변소간에도 룡경해온 발수건과 반찬꺼리가떠러저잇슴을보아 집안에도아무유서가튼것도 남기지안헛스므로 의문의자살사건이다

가정은 성대예과(城大豫科)에 재학중인 장남 광삼(光三)(二〇)을으로 아래로 딸하나 아들두명 다섯식구가사는데 남편은 만주에가서잇서 일년에 한두번씩 다녀가나 육칠만원의 자산이잇서 유족하게사는편이며 어볼도 동생아들이 내지중학에 다니는관계로 팔월에는 떠나므로 반찬꺼리를 사러나간것이라한다

龍山署長談 『검시를해본 결과 자살한것이 틀림업서 시체는 그대로 인도하엿슴니다 운운』

電送寫眞
東京─京城─新京間
四月부터取扱開始
中央郵便局電信課에機械設備

기보=체신국에서는 드디여 오는사월일일부터 경비육만원을던저 경성-동경사이 경성-신경사이에 일만케-블을 이용하야 전송사진을 시작하기로되엿다 기게는 중앙우편국 전신과안에두어 신문사기타 일반의사진 설계도등의 전송에응할터인데 요금은다음과갓다 (호수는 사진의크기를말함)

▲京城─東京間 甲號二〇圓 乙號一二、五〇 丙號七、五〇 丁號二、五〇

▲京城─新京間 甲號一二、八〇 乙號八、〇〇 丙號四、八〇 丁號一、六〇

八十老嫗燒死
昨夜社稷町火災

화로불을 잘못처치한까닭에화재가 일어나서 노인한명이타죽은 참사가 잇다

칠일오전 영시사십분경 시내사직정(社稷町)이백십이번지유성완(劉聖完)(■)씨의 온돌방에서 발화하야 삼십분간에 그집전체를 태우고 한시반경에 소방서와종로서원의 노력으로 진화되엿는데 방에누어자든 유씨의 모친 박씨(朴氏)(八〇)는 그만불가운데서 무참히타죽엇다

손해는 약사백여원가량이며원인은 화로재에불이잇는줄 모르고 버러둔것이 밤중에 괴기시작하야 그와가티된것이라한다

小學生의受驗地獄
來十五日부터入學志願書接受

조선에만흔유한 소화생의 열희난지옥은 신춘을마지하자 오는십오일경부터 다시버러지기로되엿다

경성부학무과에서는 제이부속조선인 소학교사입생 지원서 접수를 오는 십오일경부터 시작하야 이월이십팔일까지마감하고 삼월이십삼일배정된 각학교에서 일제히고사(考査)즉 시험을 하기로내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구일경에 공고하기로되엿는데 제이차 초등교육확충계획 제삼년을 마지하는공립소학교의 수용력도 구천명에지나지못함으로 지원자예상수일만삼천명에서 약 삼천명은 눈물을머금게될것이다

제일부내지인소학교에서는 십일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야 이월이십팔일마감하며 입학년령은 소화칠년사월이일부터 팔년사월일일까지에 난 아동이다

官營結核療養所
豫算十五萬圓으로落着、通過
今年中에實現豫定

매년증가의 한길만것고잇는조선의 결핵(結核)환자를구제하는 기관은 의외외국인의 경영으로 경성회기정(回基町)과해주(海州)에 결핵요양소가한곳식잇슬뿐이오 관영시설로는 한곳도업는현상으로 시시각각으로 폐가좀먹어드러가는 결핵환자들을 위하야 극히한심한 형편이다 총독부에서는 이와가티 결핵요양에 대한 관영시설이 업는 국민보건관계상 중대문제라하야 (신)년도에 약이십오만원의 예산으로 산수명려하고 풍광절승한장소를 선택하야 결핵요양소를신설하기로 되엇다 이예산은 작년십이월말경 총독부 림사회과장(林社會課長)이 동경(東京)갓슬때 대장성(大藏省)에 삼십만원을 요구하엿든바 그절반인 십오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십오만원만 통과되엿스므로 결국 총경비 이십오만원중 약십만원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 부족액은 일반유지의 기부금을 모집하야 충당하기로되엿다 그리하야 조선최초의 결핵환자관영수제기관은 신춘만물개생의 벽두에 출현키로 결정되엇다

林社會課長談 이에대하야 총독부림사회과장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결핵요양신설예산은 작년말경 최초로 대장성과 절충하야 십오만원이 통과된것이므로 재무국에서도 아직 모를것이다 총예산은 약 이십오만원을 요하는데 보족액 약 이십만원은 유지의 기부를밧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잇스면 달리변통하든지하야 신년도에는 실현시킬 작정이다 장소는 섬이될는지 육지가될는지 아직결정하지안엇스나 하여간 결핵요양에 적당한곳이 아니면 안될것인데 토지입수가 완전히 못나기까지는 장소문제만은 부득이 비밀에붓치게 될것이다

龍山師團 觀兵式
明朝에擧行

룡산사단편하의 신년관병식은 팔일오전 열한시에 룡산연병장에서 제병지휘관(諸兵指揮官)심택(深澤)중장의 지휘와 중촌(中村)군사령관의 관병으로 성대히거행하기로 되엿다 참가부대는룡산에 잇는보병 기병 포병 공병장갑자동차대 비행기 무선전신반등 각부대로 분열행진식이잇슬터이며 일반의 참관을환영한다고한다

清津、茂山間 復線敷設計畫
今年부터三個年事業
工藤鐵道局長歸任談

월여동안 동경에서 대장성(大藏省)측과 소화십사년도의 예산에대한 의론을하고잇던 공등(工藤)철도국장은 수일전에 도라왓는데 칠일오후에 이미 사정된 예산내용에 대하야 기자에게대략 다음과가티 이야기하엿다

▲건설사업으로 새로계획할수 잇는 평원선(平元線)과 동해선(東海線)등 현재 공사시행중에잇는 것만이라도 순조로 진행되엿스면 다행이겟다

▲개량공사로는 고무산 (古茂山)수성(輸城)사이와 청진 라남사이에는 소화십사년도부터삼개년계획으로 복선을 깔기로되엿는데 그공사비는 약일천수백만원가량될것으로 이것이 개량공사로는 가장 큰것이 될것이다 무산철광개발에 따라 이미복선공사가 그의 필요하게된것이다

▲경인선복선 공사예정은 올사분측관계로 또두기연기하게되엿고 용산、동경성사이에는 이개년예정으로 복선을 깔기로되엿다

▲평양、신의주사이에도 복선을 깔게될을하고잇스나 만철측의 안동현、봉천사이의 안봉선(安奉線)복선공사를 그피착수할수업는 형편이므로 이쪽도 한동안 기다리기로되엿다

▲함흥(咸興)중강진(中江鎭)사이의 함중선 신설문제도 그필요도 간절히 느끼고잇스나 그것을 진행하라면 공채(公債)를 발행하여야 될형편인데 공채발행은 될수잇는대로 피하라는정부의방침이고 또한 물자가 부족하므로 금년에는 도저히 예산에 올릴수 업게되엿다

▲사설철도가운데서 조선철도회사소유의 경북선(慶北線)만은 이번예산으로 매수하기로 되엿고 다른사설철도에 대해서는 아그보조연한이 만기되는대로 아프로 각기 오개년식 보조연한을 연기하기로 결정되엿다

▲철도국 조직을 개정 (지방철도국설치도 포함되엿다) 개정하려든 계획이 이번예산 사정에 통과되지못해서 원통하다

▲소화십사년예산총액은 약삼억수백만원으로 그가운데서 건설비와 개량비로만 전년도보다 오천만원가량 증가되엿다

時兆社金主筆
遠東會議에參席

시조사(時兆社) 내외부주필김창겹(金昌■)씨는 『신가파』에서열니는안식교회원동지회(安息敎會遠東支會)에 조선대표로출석하기위하야팔일오후네시오분『아까스끼』로경성역발 그곳으로떠나기로되엿다 (사진은 김씨)

不正綿商
斤量詐欺를警察取締開始

엇동안부터 엄청나게 수용이만흔 솜의근량을속여파는상인이잇서 경제경찰이 착척하기시작하엿다

본정경찰서 경제계에서는 칠일아침 본정일대의 솜(綿)가게를 일제검색한결과 모리사제품솜가운데는 오십본매한근에 오십전이라는 정당한가치로 실지는 사십본매밧게안되는것이 다수히발견되엿다 즉시판매상인과 제조사인 모제면회사 지배인을

今日의라디오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六時三〇分 뉴ㅣ스 銃後美談 夫鑛 白寬洙 ▲七時三〇分 講演 豫報 ▲八時 歌謠曲 金海松 李玉順 ▲八時三〇分 野談 張玉■ ▲九時 京城歌謠 申福秀 張玉■ ▲九時三〇分 뉴ㅣ스解說 時報 ▲一〇時一〇分 레코ㅣ드

天氣豫報

槪況 小低氣壓은黃海와濟律近海及日本海北東部에잇고 高氣壓은 蒙古에七八〇粍를示하며 北支那及滿鮮으로 퍼지고잇다 朝鮮東部는晴 其他는흐리고 處處에降雪이잇다 滿洲는 大槪개엿는데 北滿은 處所에따라降雪이잇다 內地는흐리며 東北地方及北海道는 降雪이잇다

豫報 今夜와明日은晴 一時雪이다

昨日最高 零下七度七
同 最低 零下十九度六
七日朝最低 零下十一度二
同日正午 零下二度八

시내에서유명하다고 이르는어떤사주쟁이에게 의한관하는할에 사주니、관상이니、신수를보러오는 사람이만흔것은 내버리울하해서는 밧갓다 ▲그러나 어쩌면 세상사람이이러케도 마음이들떠서 이야단이나고말하더라는것이다 ▲신념을못가지고、갈팡질팡하야 이리갈까、저리갈까 헤매이다나머지 내종에 장님이나사주쟁이를차저가서 ▲어떤신통한말을듯고 새길을찻게되엿섯는지는 알수업스나 결국은 신념을 또두루가졸생활을 해온 천박한우리이엿다고 경멸해도 할수업슬것이다 ▲이런사람은 결국자신을일위하라는것이 자신을버리는사람이라고볼것이니 자기신념을못가지고 남의것은 어떠케미들수잇슬까 ▲결국은 갈팡질팡 허둥지둥하다가 마는것이 가엽지안흔가 ▲우선 제마음을 차저야할것이다

名觀相家
開運의好機는只今!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생선룡성】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科學的관상의大家로서 大好評을밧고 京城相學院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 (南大門ㅅ大漢門의中間電車通)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府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尹膏藥 (윤고약)
手術안코도惡性腫毒과 骨髓에기피든어렵고、오래된瘡毒을잘낫게함
製造本舖 京城府長橋町八 慈祥局

松の實ミルクキャラメル
京城菓子株式會社

神經科 內科 專門
李重澈醫院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
入院室完備
醫學博士 李重澈
電光二二四〇番

夜學講習生募集
講習期間 自昭和十四年一月十六日 至同 七月十五日
講師 山中盛二郎氏 董春田氏
講習生申込資格 高等小學校卒業以上ノ學力
募集人員 約六十名
申込締切期日 昭和十四年一月十五日
規則照會 京城府和泉町六番地(光一八八四番)
標準支那語講習會
同民支那語講習會
後援 京城商工會議所 京城卸商聯盟會

工業案內
三錢切手送付하시면 小資本大成功의 案內를드림
京城府長沙町二 泰昌工業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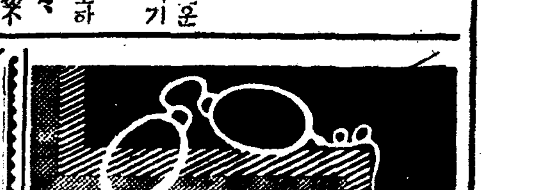
喘息・神經痛
高血壓 中風
不治아니다
今津博士의畫期的한研究

(左)研究中의今津博士

今津研究所 大阪市阪急線

モヒ中毒
根本療法 無苦痛
慢性
オネボンタージン
北海道帝國大學醫學部教授 太黑薰先生創製
發明完成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京城府本町四丁目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林繁藏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出張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メガネハ

京城帝大眼科 京城醫專眼科 京城公眼科 京城赤十字眼科 御指定
京城本町一丁目入口
中村眼鏡店
本局五〇一七 振替京城三〇四六

謹賀新年

レートクレーム

레-도구레-무

朝夕으로바르시면
아름다운살결이됩니다

特長

一、살결이 거치러지는것을 防止합니다
二、잔주름을업시하고 살을아름답게합니다
三、化粧下에는第一좃슴니다

腦病과神經衰弱에腦素

現代는頭腦의時代이다。工夫하는 學生諸君의成績을 決定하는것이、頭腦인것은 누구나 다아는바어지만、社會各層을通하야、그社會生活의優勝劣敗를 決定하는것이、頭腦이다。現今과가티 頭腦가重視되는時代는、또한比類업는 頭腦의酷使時代라고도할수잇다。世上에神經衰弱、히스테리、不眠症等其他의 無數의頭腦病者가氾濫하고잇는事實은、무엇보다도、그들이頭腦를 酷使하고잇다는것을 證明하는것이다。

腦素(ノーソ)가從來巷間에流布되여온羊頭狗肉의 一時的鎭靜劑에比하야 그效果에잇서 宙壤之判이라는것은、이미天下周知의事實이다。本藥은、東京腦髓醫學界의泰斗인 醫學博士 尾形榮先生이 多年間苦心研究의結果 腦神經細胞의主成分이며、精神活動의司令者인 腦髓호루몬의原素＝有機性燐化合體를 主成分으로하야 여러가지 高貴藥을 配劑完成한것이므로 腦髓의組織을强化식히며、疲勞를恢復식히며 腦髓에榮養을 補給하야 根源으로부터 腦病과神經衰弱을 꼭꼭根治식힘니다。따라서恒常健全하고、明快한頭腦를保障케하야、實로놀나울만한效果를 發揮하는靈藥입니다。

無代進呈　葉書로申込하시는 분에게 『腦素』試藥과 土田醫學博士의『腦病治療讀本』을送呈합니다

主効　神經衰弱(記憶力減退・頭腦重壓・精神過勞・遺精・夢精等)히스테리・頭重・頭痛・偏頭痛・不眠症・腦充血・心悸亢進・宿醉等에卓効임

藥價　十日分 二圓　十七日分 三圓　三十日分 五圓　七十日分 十圓　百五十日分 二十圓　送料 四十二錢

東京市淀橋區[illegible]二丁目二十二番地
和田藥化學研究所
電話[illegible](87)四八九番・[illegible]一八番
振替東京八六五五番

明治メリーミルク

메리-밀크

004392

살찌고、자라고、튼튼해지는
理想的最優良煉乳

理化學研究所・鈴木農學博士 推奬

明治メリーミルク는모든點에綿密한注意를하여서製造된優良品이므로安心하시고乳幼兒에게주십시요

★

明治製果株式會社

萬年筆鐵筆이傷치안는

ライトインキ

이런超非常時！
資源愛護의秋!!

萬年筆이나 鐵펜을 오래가지게하는 ライト로써

經濟와 能率의 一擧兩得……

淸純 淸麗……

모두滿點인ライト!!!

天下一品！
一家一瓶！
(大瓶…小瓶…各種… 全國文房具店에有함)

2온스 스포이드付 正價30전

チヤムピオンインキ製造元
本舖 篠崎インキ製造株式會社 東京

家庭

물건을사가지고 거를때의몸태도

잘못하면헙개빠저보여

거리로 젊은여자들이지나다닐때 얼골에 화장이라든지 의복맵시는 말할것도업고 그밖게 여러가지 몸가지는 태도에도 아름다운것과 보기실흔것이 나타납니다

흔히 백화점에나 큰상점에드러가 여러가지 물건을 사가지고 나올때 물건을어떠케 들고다니나가 눈에뜨입니다

양장이나 조선옷을 입엇슬때산물건은 상점에서 얌전하게싸고 끈으로매여 주는대로 가지고 다니는것이 보기좋습니다 특히 책보가튼데 싸가지고 다닐것은업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건산것은 크다라케 한궁치로 만드는니보담 자잘자잘하게 세둥치쯤으로 난호와싸는것이 조흡니다

그래서 하나는 엽구리에 끼고 다른두개는 다른손에 그냥들고다니는데 이때 팔을넘우아래로 축느려트리지 말고 잔뜩팔굽치를 꾸부려서 물건이 몸에서 넘우멀니떠러저 데룽데룽하지안토록해야 입뿌게 보입니다

물건을 아무리 캐나수체스 멋게 들고다니는사람은 웬일인지 얌전한 맵씨는업스니까요 넘우큰물건이면 역시 두어개로 난호와차서들고나서야 파히모양이 숭업지안습니다

조선음식례찬 비타민·씨의효능 ❶

세부란스病院內科 李輔英

우리가 매일 세끼씩먹는음식이 왜 조타는것을써서 조선음식의 례찬을 하랴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음식이 무어이 다른나라음식보다 조흔가 이것도 여러가지 잇습니다만은 그중에도 조선사람만이 제일 만히먹는 음식가운데『비타민씨』가 만타는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현상(生活現象)을 유지하는동시에 몸안의 이화작용(異化作用)으로인하야 소모되는 신체의조직을보충하고 완전한 생활을 하라면 식물을 취하여야하는것입니다. 식물의종류가 얼마나 되느냐하면 약사백종이나됩니다. 거기에 구황식물(救荒食品)을합하면 약오백가지나 된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화학적으로 분석하야보면 함수탄소(含水炭素)、단백질(蛋白質)、지방(脂肪)、무기염류(無機鹽類)、수분(水分)으로 나눌수가잇습니다.

최근 영양학이 진보됨을따라 이상의 영양소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고 자랄수가 업는것을알엇습니다. 즉『비타민』을 먹지안흐면『비타민』종류에 따라서 여러병이 생기는것입니다. 비타민의종류는『에이,삐,씨,띄,이』에『푸』여러가지가잇습니다만은『비타민씨』와 조선음식에 대하야 다른나라것보다 낫다는것을 자세히 기록하랴는것입니다.『비타민씨』는 괴혈병(壞血病)예방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비타민씨』가 음식에 업스므로인하야 생기는 이괴혈병은 오래전부터 일종의 영양장해로알어섯습니다 십삼세기(十三世紀) 십자군(十字軍)시대에서도 괴혈병의기록을볼수잇고 구라파에서는 예전부터 먼바다를항행하는사람、탐험가、출정군인、농성주민(籠城住民)、빈민굴에 이괴혈병이 만히발생하야 생명을 일헛섯다합니다. 그리하야 그때에도 신선한채소와 과실이 이괴혈병에 효과잇다는것도 아럿섯습니다. 여기에 자미잇는 이야기가 잇습니다. 서력일천오백삼십오년『찌야구까ㅣ기르』씨가 항행중 선원백세사람가운대 백사람이 괴혈병에걸려 이십오인은죽고 다른 죽지안흔 선원은 견디다못하야 바다가로나와『예수』의초상을 내여놋코눈가운대 업드리여 병을낫게하야주십사고 빌엇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낫지 안헛섯습니다. 그가운대 한선원이 섬사람으로부터 솔나무잎을먹으면 낫는다는말을듯고 솔나무잎을 먹엇드니 신기하기도 죽을병이 나엇다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솔나무잎이 괴혈병을 낫게한다고하야『비타민씨』제조에 만히썻다합니다

그후일천칠백사십사년안하하든 선부가 괴혈병에걸려 죽게되엿섯습니다 다른선부들은 전염병이 생기엿스니 큰일낫다고 야단하며 이선부를 묵지에 내여버렷습니다 이선부는 두다리를은통하야 기여다니면서 주생파가티 흙을만히먹엇도탑니다 그래던니 묘하게도병이 이전쾌되엿섯다합니다

그후부터 만흔 학자들이신선한 야채와파실이 괴혈병에효과가잇다는것을 증명하야 항해하는사람들 출정군인에게 야채와파실을 먹게하야 괴혈병이 차차 적어젓다합니다 이와가티 괴혈병은 시선한야채와 파실가운데 에잇는 특별한성분의 결핍으로인하야 생기고 신선한야채 파일의보충으로인하야 치료된다는것이 나타난다는 학설을 반대하고전롤부하고 영양장해로 인하야병이 생긴다는 학설을 주장한 그집생이학자도 잇섯습니다 그러나 동물실험으로 괴혈병을 발생하게도 할수잇고 낫게도 할수잇게됨에따라 전염병설을 보정하게 되엿습니다 이와가티 십오세기부터 우리기일상의는야채와 파실에 괴혈병예방『비타민』즉『비타민씨』가 만타는것을 알엇습니다 그러면『비타민씨』가 생리화적으로무슨작용이 잇느냐하면 신체의세포의 필요에 응하야 산소와결합하야 가역성(可逆性)산화형으로되고 도산소를 요구하는다른 물질에 자기의산소를 주어서 다시 원환원형으로 도라옵니다. 이와가티 화학적변화를 반복하야 세포안에서 호흡장용을 도아주는데 작용을 밧고잇습니다 그리하야『비타민씨』가 부족하면 어던세포는 정상적용을일게되고 따러서 괴혈병이 생기고 또는 다른 여러가지병에도 저항력이 적게되는것입니다.

長篇小說 愚氓【193】

朴泰遠 作 洪祐伯 畫

쫏기는몸（４）

히끗 히끗 눈조차 날리는날이다.

이따금 바람이 거리의를휩쓸때, 위──잉 하고 울리는 전선줄 소리가 유난하기짝이업다.

조반을 마치고난 전영호는길떠날 차비로, 우선 속에다가내의를 한벌 더 껴처 입으며이맛살을 잔뜩 찌프리고 잇섯다

바로 조금전에 심봉사가 가지고 돌아온 정보가 그토록이나, 그에게는 못마땅하고 또몰안스러웟던 것이다.

이날 아침 일찌기, 전영호는 심봉사를 왕십리로, 구경득을행정으로 보내보앗다. 아침아홉점반 차로 양평으로 떠난다는것은 이미 결정이 된 일이거니와, 그래도 떠나기 전에두군데 사정이나 좀 알아, 한편으로는 궁금도 풀려니와, 또한편으로는 동정을 알아, 이재아프로의 대책을 강구하자는것이다

（그놈이、그 쾌씸한 경영이놈이 경찰에다 고발을 햇느냐?안햇느냐?……）

그것이 우선 궁금하엿고、（만약 햇다 하면、그 그고연놈이 우리의비밀을 어느정도까지알고 잇서던것이냐?……）

그것이 크나큰 문제가 아닐수 업섯다.

（허지만 요행히、이놈이 아직 사건의 전말을 경찰에다 알리우지 안햇다 하면……）

그것은 물론 바라기 어려운일이엇스나, 그래도 그는 이경우에 그러한 것에다 한가닥의 희망을 걸어도 보앗다. 그러나 그것은 어림도 업는 생각이엇다. 간 지 한시간이 채 못되여 도라온 심봉사는、경영이가 그때 그길로 경찰에 고발을 한 듯시퍼, 자기가 왕십리로 갓슬때에는 이미 최이화와 음천이가 이미 경찰에 불리어간 뒤엇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가라서는 사태가 그다지 절박하지는 안타고도 할수 잇슬뿐이다. 경영이가 대체 어떠한 내용의 고발을 하엿던 것인지는 물론 알길이업는 노릇이지만, 우선 음천이와 최이화만은、데려갓슬뿐으로 할멈도 그냥 두어두고、가택수색도 하지 안흔 모양이、그들이 아직도 사건의 주대성이라는것을 모르고잇는 까닭일것이다.

그러면、앵경정에까지는 아직 수사의 손이 미치지 안햇슬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경찰이 본격적으로 착수할수 잇기전에, 자기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할, 시간의 여유는 잇슬것도 갓다.

파연, 전영호가 완전히 차비를 차리고 낫슬때, 마침 도라온 구경득은, 앵경정에 별일이 업슴을 보한다.

『동오는 무얼하고 잇더냐?』

전영호의 뭇는 말에, 구경득이는

『아직도 처리할 서류가 그저 잇서 그일에 분망하옵니다……대원님 분부하옵신대로 전하얏더니 이르신대로 시행하올것습니다고 아리옵니다』

대답이 끗나자 마자 여페잇던 장봉자가 불안스러이 미간을 징그리고 말하엿다.

『그럼 그애는 안데리고 가시나요』

『응。아직 남아 잇서 시킬일이 만하 놔서……』

전영호는 일체 진말은 피하고 곳 구경득과 심봉사 그리고 장봉자의 세사람을 데리고 용머리집을 나섯다.

히끗 히끗 눈조차 날리는날이다.

이따금 바람이 거리의를휩쓸때, 위──잉하고 울리는 전선줄 소리가 유난하기 짝이업다.

늘 애용하던 중산모를 오늘은 메하고、박한모를 푹욱 눌러쓴 전영호는 그즉시 전차로 빠꼬다공원 아페까지 이르러 파수동 차부로 갓다.

네사람이 모두 그 뮤란 이러난 이래로 잠한잠 못잣던터이라 떤때 어서 부석한 얼굴들을 하고 잇섯다.

그래도 별로 남들의 이목을 끄는일 업시, 그들은 차표를사고 조금 잇다 양평행 차우에 올랏다.

차가 청량리 박글 나갈때까지, 전영호는、홀엇 창박글 내어다보고 잇섯다. 그는 자기가 이러케 낭패를하고 황황히 서울을 떠나는것에 감개가 업슬수 업섯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케 떠난 몸이, 여엉영 다시 서울땅을 밟아보지못하게 되리라는 것은, 신령이 아닌 몸으로 알렴이 업섯다.

우리치지

玄米 白米 因 進永精米所 主 許元道 電話八番

『錦泉』釀造元 金海藥酒釀造株式會社 / 進永酒造株式會社

御旅館 昭和旅館 / 御料理 昭和館 / カフエー 昭和會館

進永驛前 進永農場 電話九番

南山醫院 院長 金鳳勳 電話四〇番 / 進永印刷所 主 文守用

東星商店 主 李元祥 / 土井秀邦

⊙朝鮮運送株式會社 / 安江梅吉

進永運輸株式會社 專務 金廷泰 / 金融株式會社 社長 宋成學

大山產業組合 / 進永產業組合

二林產業組合 / 金海郡進永面進永里 宋彬晟

金海郡進永面 面長 金潤奭 外職員一同 / 加述酒造場 主 金潤坤

進禮面長 宋世允 外職員一同 / 酒類製造業 坂本平太郎

二花面長 崔善宗 外職員一同 / 明洞酒造場 主 鄭奎允 / 姜俊錫

大山面長 崔鉉錫 外職員一同 / 信英曹達工場 諸洛學 / 精米製造肥料食糧 金鐵柱 / 進禮面松亭里 魚允江 / 慶尚南道 進永金融組合

青柳種吉 / 進永醫院 院長 李貞熙 / 姜興錫 / 晋州 金斗台 / 趙鏞仁 / 旅行、日活、新興、特約 常設 三浦館 電話一四四番 / 漢藥有名新藥及 濟生堂藥房 主 河洞琪 / 辯護士 寺川三藏 / 元準玉 / 料理 更科 電話三五一番 / 鄭相珍 / 鳳山高等女學校 / 朝鮮料理 建興館 電話一五八番 二六六番 / 辯護士 李豐求 / 慶南陸運株式會社創立事務所 代表者 竹本熊次 / 正陽堂藥房 鄭泰驥 / 晋州鑛泉社 朴奎錫 / 晋州郡農會 / 晋州公立學校長會 / 永和精米所 電話三三三番 / 公認晋州女子技藝學院院長 權福海 / 支那料理 群賢館 電話一〇九番 / 尙文齒科醫院 電話二六九番 / 晋州榮圃學校 丁錫祿 / 晋州郵便局長 江口正吉

智水面事務所 職員一同 / 內科 公醫 趙琪洪醫院 電話一四八番 / 仁豊堂藥房 / 朝鮮料理 京城館 李泰圭 / 晋州魚菜株式會社 / 晋州劇場 徐宗淑 / 金奉圭 / 和洋料理 東亞軒 電話四〇三番 / 原田自動車部 電話一〇三 一五五番 / 布木商 洪成允商店 電話四二番 / 喪中欠禮 姜渭秀 / 喪中欠禮 鄭鍾根 / 紅峴 湖東面扇山里 黃家農場 主務 黃富業 / 黃海線仁峴驛前 絹布百貨 趙根培商店 / 黃海線仁峴驛前 絹緞布木 吳宣根商店 / 黃海線仁峴驛前 流泉機械商會 主 趙時播 / 黃海線紅峴驛前 絹布百貨 金相民商店 / 黃海線紅峴驛前 布木ゴム 朱昌植商店 / 黃海線紅峴驛前 材木金物肥料農具 共榮材木店 / 黃海線紅峴驛前 朴栽東 / 黃海線紅峴驛前 紅峴醫院 院長 黃禹埭 / 黃海線紅峴驛前 濟生醫院 崔榮灝 / 黃海線紅峴驛前 劉在學 / 黃海線紅峴驛前 朝鮮料理 紅峴館 / 黃海線紅峴驛前 廣成精米所 安鳳勳 / 黃海線紅峴驛前 延和商店 主 鄭春煥 / 黃海線紅峴驛前 昭和理髮館 主 申奎均

黃海線紅峴驛前 第一古物商 主 李錫根 / 黃海線紅峴驛前 丸永古物商 主 李敬善 / 黃海線紅峴驛前 靑山商店主 車尙根 / 黃海線紅峴驛前 雜貨 李元基商店 / 黃澗 / 京釜線黃澗驛前 ⓡ南鮮商會 鳳臺金山事務所 電話 振替 七一八〇二番 / 京釜線黃澗驛前 옷감 잡화 開明商會 洪範植 / 京釜線黃澗驛前 米穀肥料雜貨 大陸商會 呂壽長 電話一〇番 / 黃澗驛前 陳孟洙 電話一二番 / 上村面月村里 三黃鶴金山 / 馬山里 裵福大 / 馬山里 沈斗燮 / 馬山里 李廷秀 / 馬山里 中山鶯一郎 / 南城里 申鳳洙 / 南城里 金聖坤 / 南城里 徐亨善 / 黃澗面友梅里 徐壽煥 / 黃澗面院村里 張元基 / 上村面柳谷里 大一金山 南喆祐 / 永昌醫院 曺永鎬 / 京釜線黃澗驛前 和洋料理仕出し 富士 玉乃玉 主 徐啟贊 / 朝日旅館 李根植 / 黃澗面蘭谷里 金振玉 / 黃澗面新興里 靈泉寺 / 黃澗面友梅里 徐鳳周 / 黃澗面友梅里 徐大成 / 東洋寫眞館 李東俊 / 黃澗 宋江 / 黃澗 逢春館 李起亭 / 金榮煥 / 上村面弓村里 浩明商會 朴光勳

林山市場 絹緞布木日用雜貨 南昌商店 南基賢 / 錦上旅館 孫光文 / 黃澗 李鍾碩 / 黃澗面新興里 布木商 金石萬 / 黃澗新市場 金鍾玉商店 / 黃澗面南城里 申義植 / 黃澗面南城里 尹太榮 / 黃澗面友梅里 徐順乙 / 黃澗驛前 姜同植 / 黃澗面新興里 金斗煥 / 黃澗驛前 徐相潤 / 黃澗面友梅里 金有泰 / 南城精米所 朴喜俞 / 黃澗面南城里 第二區區長 李源敎 / 黃澗驛前 金敎錫 / 新成館 / 黃澗面院村里 孫敬模 / 黃澗面院村里 區長 鄭泰連 / 黃澗面友梅里 李圭頭 / 黃澗面老斤里 區長 安衡濬 / 金亨泰 / 新興里 金相旻 / 新興里 金磐在 / 黃澗面友梅里 徐判吉 / 黃澗 防共團一同

金弘植 / 黃澗市場 安琴石 / 金富根 / 黃澗山本洗濯所 朴來善 / 黃澗面新興里 張錫柱 / 中部城西營業所永同總代理店 主 金判述 / 黃澗面友梅里 區長 徐宗述 / 閔泳祐 / 黃澗旅館 朴良伊 / 閔泳默 / 黃澗驛前 果物菓子新聞 崔錫烈商店 / 忠北永同郡黃澗面南城里五七一 高崎合名會社黃澗出張所 金泰年 / ⊙黃澗代行營業所 / 上村面林山市 公醫 洪日福 / 梅谷面老川里 更生部落一同 代表 李相允 / 上村公立小學校 金基衡 / 梅谷面老川里 林珍圭 / 上村面林山里 南基明 / 黃澗驛前 絹緞布木 日昌商會 박히우 / 上村面林山里 宋錫重 / 郭天是 / 禮山 敎育會 / 禮山郡廳 職員一同 / 禮山金曜會 / 禮山稅務署 稅友會 /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禮山出張所 電話二五番 / 各種機械農具運業用金物修理及製造販賣業 趙福漢鐵工所 忠南禮山邑五里亭 電話取次四八番 / 王浚

實業 金智泰 / 忠南禮山驛前 大同精米所 成春慶 電話一二二番 / 穀物商組合 / 實業 禮山郡吾可面元里 金柄天 / 禮山郡廳 / 株式會社 東一銀行 禮山支店 / 禮山面事務所 職員一同 / 忠南自動車運輸株式會社 禮山營業所 電話二五 一四九番 / 禮山邑內 睦商會 電話一四八番 / 禮山邑 各種發動機販賣及修理 忠南商工社 金允玉 / 忠南禮山邑 朝鮮堂時計店 / 忠南禮山市場 綿絹布木紙物雜貨 金興國商店 電話百十二番 私書函第十三號 / 忠南禮山邑內 綿布雜貨 李周鉉商店 電話一一六番 / 齒科醫師 鄭鎭虎 / 同興精米所 電話一一一番 / 禮山釀造株式會社支店 金炳均 / 禮山驛前 朝鮮料理 太西館 / 大興 尹曦求 / 朝鮮料理 永興館 電話一二九番 / 禮山驛前 米穀委託賣買肥料仲介 東亞商會 電話二六番 / 大興 李範敎 / 天一藥房代理店 有名賣藥 有名化粧品 普恩藥房 京南線禮山市

大興面事務所 職員一同 / 忠南禮山郡大興市 禮山釀造株式會社 大興分工場 / 忠南禮山郡光時面光時市 光時釀造社 / 實業 禮山郡光時面 黃喆周 / 光時 新興商店 / 禮山面香泉里 金融組合長 崔圭錫 / 海東醫院 醫師 吳達泳 / 忠南禮山郡禮山市場 海陸物産委託及貿易販賣業 柱信商會 電話四一番 / 忠南禮山邑內 綿絲物絹絲布諸雜貨 李敏商店 電話一五〇番 / 忠南禮山邑內 三和ゴム株式會社禮山販賣店 / 忠南禮山邑 綢布木和洋雜貨 各種ゴム靴郡散賣 三永商店 主 李三永 / 忠南禮山邑 各種ゴム靴郡散賣 昌永商店 主 李昌永 / 百貨 黃鶴柱商店 / 朝鮮忠南禮山市 正時堂時計店 電話一一九番 / 忠南禮山邑本町通 洋品店 白羊 / 忠南禮山郡禮山面禮山里 海陸物産委託販賣 俞鶴濬商店 / 釀造工業 同德社 / 京南線禮山驛前 禮山精米所 電話四七番 / 忠南禮山驛前 世興精米店 電話一四二番 / 忠南禮山中央 精米所 電話一一七番 / 光時 光時商會 / 大興 尹昇求 / 全州 / 金溝面大化里 鑛業 金順宗 / 高敞邑內 鑛業 宋順善 / 金溝面五鳳里 鑛業 崔桂煥 / 全北高敞 鑛業 李康泳 弘昱 / 全州滿水町 徐廷均 / 全州府會議員 崔禮煥 / 全州府大正町 平安旅館 電話七〇九番 / 日本鑛業 金溝鑛山

己卯年을 通해 본 政治家
高麗太祖 ②
湖岩

太祖의 一逸話이나 오히려 그眞面目이 發揮할 數가 잇는것은 卽位初에 叛徒가 凶器를 들고 宮中에 突入하야 御座를 犯하려할새 太祖께서 혼자게시다가 厲聲으로 꾸지람하매 叛徒가 그만 氣가 질려 逃竄하고 말엇다. 倉卒間에 發揮된 偉人의 膽力이 어떠한가.

太祖의 政策은 後百濟를 強硬하게 反하야 新羅와 渤海에 對해서는 어대까지 懷柔하엿는데 이政策이 効果를 내여 干戈를 움즉이지안코도 能히 南北으로 領土를 擴張함을 어덧다.

敬順王을 駙馬로삼고 太太子를 宗室에 列하게한것은 이 懷柔策의 最大實例이오 또 最後勝利이다.

太祖는 渤海遺民을 優待하고 新羅遺臣을 大用하야 事實에잇서서 高麗國家안에 南北兩族을 吸收同化하엿음은 當王으로서의 賢明한 그態度를 보혀줌이다.

太祖는 이미 新羅를 歸有하고 또 後百濟를 征服하야 羅末에 分裂됏던 後三國을 다시 收合해서 그國家이 統一時代의 新羅에 復古되엇스되 決코 新羅의 半島統一그것으로만은 滿足하지아니하고 떠러저나간 高句麗의 舊疆을 마자恢復하려고 始終努力한것을 보면太祖의 雄圖는 朝鮮半島와 滿洲大陸의 全的統一에 잇섯스믈 알것이다.

이全的統一이라는 雄圖야말로高麗一代를 通하야 때로그것이 消長의差는 잇섯슬망정 最後까지 繼承해왓스니 太祖의 끼친바가 偉大하다 하겟다.

太祖의 外交는 일즉西로後梁에 通聘하며 東으로 日本에修交하야 國際의親善을 꾀하면서도 홀로北狄契丹에게對해서는 無道한 나라라하야 國交를 拒絶하고 말앗다.

論者흑은 이로써 太祖의失策가티 말하나 太祖의 明見으로 將來北進의 國策따 一大衝突이 잇슬것을 豫想하고 後世子孫에게 警告하기 爲하야 그리한것이 아닌가한다.

草創時代의 太祖는 그經營과施設이 完備하지는 못햇스나 立國의 規模와 精神에이르러서는 高麗五百年의 創業主를 지엇다 太祖는 創業主에 그 經綸이며 또그 度量이 大帝王으로 推稱할만하다.

學藝

支那文學과 朝鮮文學과의 交流 (下)
金台俊

支那文學에서 우리가 느기는 한가지의 特性은 그『스켈』의큰것이다 特히 水滸志 三國演義 紅樓夢 西遊記를 닑으면 머리가 숙어진다 盜賊이야기나 쌔움이야기나 淫談이나 夢幻니야기를 어쩌면 이러한

『規』

模로 運筆할수가잇섯는가하는點이다그 用語가 膠着語라上古로 올라갈수록叙述이 纖細치 못하나 年代가 나려올수록『語錄』『白話』를 빌어서 細密히 기술하고잇다 그러나 文字의誇張性은 否認할수업다.

同代의 地理志인 山海經의誇張은 古代에屬하니 容恕한다치고、莊子의『北溟有魚……羊角直上九萬里』가 그렷코 李太白의『白髮三千丈』이 모두 그러라 그런이가『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도잇다 漢詩란 이런게다『宇宙百年人似蟻、山河萬古國如萍』은 李東岳의 統軍亭詩라 하거니와 漢詩의 作者들이 開口第一에『萬里他鄕』이니『萬古山河』니 하는것은 입버릇이될 되여잇고 秋風을對하면 설다하고●달을보면 故鄕그립다하고.

『松』

栢은 忠節之物이라하고 ……이러케詩的觀照의 對象을固定化해서 일부러 思索의 方向을조피는데 잇는다.

成三問의詩

『이몸이 죽어저서 무엇이 될고하니 蓬萊山 第一峰에 落落長松이되엿다가 白雪이 滿乾坤할제 獨也靑靑하리라』

이詩는 이땅의말로된 것이 音律이 곽諧協하고 두가조 活潑한詩지만 表現된意識은『死後忠魂이松이되겟다』는것이니 要約하면 簡單하다

그리고 支那에서도 唐宋文化는 그質이 다르다 唐의文學은 含蓄이만코 潤澤이잇고 宋의文學은 生硬하고 뻐뻐하다 조선에서도 高麗와李朝에 이만한差異가잇다 漢文漢詩에서뿐만이아니라 鄕土文學에서도 그러타

高麗王朝는 文選時代라 詩文이모두 文選을공부하면 되엿는데 高麗末부터는 東坡를 배우기시작하야 李朝中葉까지는 東坡 그他江西派를 專主하엿다李朝中葉부터는 다시文選에도라가

『漢』

文體로를 主唱하다가 李朝末에 이르러 淸朝詩風이 輸入되여、一時新社 新風을세우기 始作하엿스나 朝鮮은不振하고 마럿다

朝鮮과 漢詩는 一業補充하고

하고 高麗에서 李朝까지 千年동안 使者冠蓋가 絡繹不絕하엿다 特히 李朝에 와서는 每年 一、三次씩 賀正使니 冬至使니 무슨 進奏使니 무슨 辨誣奏使니하는 名稱으로 明、淸에使者를派遣햇슬뿐아니라 明淸에서도 數年一次씩 冊封使 降詔使 等等의名目으로 이땅에왓다가곤하야 저나라의書冊이 著作되지 몃날이되기前에 반다시 이나라에 紹介되고 이땅의名著가 中士에 알리여 이땅의漢詩가 明淸人의 詩集속에 編入된者가 적어도數十篇을不下하리라고 밋는다.

明詩綜, 別裁集, 明詩選等에는 적지아니한 先輩의漢詩가잇다 그러나 大體로 李朝文學을評하면

1、思想은 朱子學
2、詩는初葉은蘇黃、中葉은唐과 明、末葉은淸
3、文은古文漢文으로全主함

極端으로 이것을

『崇』

尙한結果는 鄕土文學에까지 影響해서 李朝文學은 퍽뻐뻐하고 生硬하다.

李朝에는 十二歌詞나多數한時調는업스되 高麗의『靑山別曲』『滿殿春』『가시리』가튼 歌詞는업다.

朝鮮의 文學을 論하려는者면 저高麗時代의 歌詞를 읽어보라 아마 조선말로도 能히 이처럼 格律조흔詩를 지을수가 잇섯는가고 놀라리라 靑山別曲의一節

살어리살어리랏다
靑山에살어리랏다
머루랑다래랑먹고
靑山에살어리랏다
얄리얄리얄랑성얄라리얄라

滿殿春의一節

어름우에 댓닙자리보아
님과나와 어러죽을망정
어름우에 댓닙자리보아
님과나와 어러죽을망정
情둔오늘밤
더디새오시라
더디새오시라

가시리의一節

가시리가시리잇고
나난버리고가시리잇고
날러는엇지살라하고
나난버리고가시리잇고

等을 읽어보면『새야새야 鳳凰새야』라고나 하는 部分을『울하울하 아련비올하』 滿殿春의一節에 李朝사람들가라고하엿다 나는多辯하려하지 안는다 漢文文化의 大量的輸入이 高麗以來의이땅의 言語가 가진特性美를 發揮할수가업시 맨에 傳統文化의正當한 進路에 큰頓挫를 바든채 李朝五百年을 經過해왓다고하여도 過言이 아니리라고밋는다(了)

鄕歌와 國風·古詩
그年代와 文學的價値에對하야 (下)
梁柱東

이것의根本的原因은兩者가모두 年代오랜적어도初中期의文學인點에잇스려니와特히그民謠的인點、글이 말을 멀리떠나지 안흔點은 上記한바와 가타 그作者들이 非專門家인 詩人、各階級各層의 各色의 사람이엿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遺事所載 十四首中에는 그 作者가 或은 王의 前身도 잇고 或은『師』號를가진이도 잇고 또花郎、僧徒들도 잇고 女流或은 村翁도잇고 乃至小兒도잇는데 그詩風은 어느것이나 卽興的歌謠에 不外한다。따라서 그노래는어느것이나 나이브하고 新鮮하고、古樸하야 一切로 漢文學의 影響、感染이 적고 돈느지맨드리즘에로 흐러이 업다。 듣든이 十四首中에 多少의 漢文學影響을 聯想할것이란 怨歌、安民歌 二首가 잇슬뿐이나 그것도 그리자가 그다지 도렷하지안코 處容、薯童謠、彗星歌、讚耆婆郞歌의 놀라운 構想、手法은『國風』에도 보지못할 재주로되 그대로素朴한맛은 底面에 亦是 흐르고잇스니 저後代『詩人』의『作』의 區區한 修飾的 流麗와는 同日에 論할바가 아니다。若夫『風謠』一曲의 超素朴味와 處容歌의 圓轉、洒脫한 風을 제아무리 國風인들 어디서 例示하랴。鄕歌에 雅、頌이 업는것을 恨할것은 업다。雅、頌의 宮廷詩人專門家의 作이면야 비록 古는 古할망정 아무래도 이러케 樸은 못할것이다。

『燕君臣王壽多年事』의 그 歌詞를보지못함이 千年後에도 未嘗不恨事는 되거니와、恨事는 恨事대로 두고、우리는 一然師의 흥대로『羅人尙鄕歌者尙矣、蓋詩頌之類歟。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이엿든것을 알아、鄕歌가 이미『風』수에『雅』을 內包한것으로 자랑하지 안흘수가업다. 이것을 古代의 鄕歌觀으로 區區히 解說하라면 그는 別問題려니와 써우리의 古代詩人、乃至古人一般이 얼마나 詩歌를 愛好、且神聖視하엿는지알수잇지안흔가. 藝術에 關한 이러한態度는『國風』에서 볼수업는것이오、따라서『思無邪』의藝術觀으로서도 못밋칠바요、하믈며 後世說多의 勸善懲惡的詩觀의 夢想도 못할바이다.

論이 어지간히 脫線에 가까와거니와 나려와서 漢魏의 古詩를 鄕歌와 언마초아 겻대여본다면 제아무리 漢代의古詩라도 多少의 文飾은 粉黛의 痕跡이 벌써 依稀하게 드러나 우리의 鄕歌의 純然한『素面』파는到底히 한데비길수가업다. 그나마 대이라면 作者不明의 古詩十九首를 가저올까.『行行重行行』이 末嘗不 絕唱은 絕唱이로되、風諭의『오다』『西反復의 素朴味는업고『迢迢牽牛星』一篇의 音韻이 東西古今에 果然例를보기 어려운佳作이로되 너무나 艶麗하고 凄切하니 그러한 재주는 鄕歌時節 羅代에는 아직 아껴두엇다가 麗謠『靑山別曲』두어章에서 追後로 發揮하엿다고하자。내가 보기에 兩者를 比較한다면 그宗敎味를 띤詩觀的 哀想이 오직兩者의 共通된底流라 생각한다。毋論 하나는 道敎的 하나는 佛敎的、그由來는 다르나마 저十九首 군대군대에 보이는 傷緖、그底面에 흐러잇는 思想은 人生에對한 어떤 哀想的、그러나 諦觀的인 境地다、그는 이十四首中에도 또한 基本的으로 共通되여잇다。다만 가튼 諦觀을 가지고도『가둥이들이로새라』로써 좀더 애써 明朗한 웃음을 우서보려한것이 이쪽 處容郞의 좀더 灑脫한 풍味라 할까。

도리켜 생각건대 鄕歌의 比較對象으로『國風』을 끄러오거나『古詩十九首』를 부르러오거나 저便은 어떠든 이미 體貌와 衣冠을 가초이요 이쪽은 아직도 배속에 잇는 童子라 해童이든 凡兒이든 모든 議論은 이분의 眞貌가 完全히 드러난 뒤에야 할일이니 아직은 나로서는 產婆學이나 좀더 工夫하는수밧게업다。(完)

新刊紹介

▲朝鮮銀行統計月報 十三年十月分 發行所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一一〇 朝鮮銀行 定價五十錢

▲綠旗 新年號 發行所 京城府初音町二〇〇 綠旗聯盟 振替京城一六〇〇二番 定價二十五錢 送料一錢

▲酒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阿峴町 朝鮮總督府財務局稅務課分室內 朝鮮酒造組合中央會 振替京城一八一九一番 定價五十錢

▲鑛業時代 新年號 發行所京城府光化門通一九八 朝鮮鑛業時代社出版部 振替京城八九二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朝鮮實業俱樂部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一〇〇 朝鮮實業俱樂部 振替京城八五四〇番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啓示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二十錢

▲朝鮮鐵道協會會報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古市町一四의三 朝鮮鐵道協會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ホーム・ライン 新年特別號 發行所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 ホームライン社 振替東京一二一一番 定價十五錢

新春文藝一等當選

素服 (二)
金永壽 作　鄭玄雄 畫

『이 예배헐놈의 담배가─』

예꾸진 담배가 두동강이 나서 요강으로 드러간다。또 한개를 꺼내서 마악 아까가티또 불을 혀치라는데

『다 먹엇수?』

이런 여므진 소리와함께 저고리를 들고 그냥 웃통을 버슨채 계집이 드러왓다。

『다 먹엇스면 상을 좀 내노쿠려』

계집은 어디까지든지 태연하다。앙큼하다。그러치만 양서방은 또양서방대로 속이잇다。계집이 뭐래도그저 못드른척한다。담배만연거퍼 힘차게빨면 고만이다。그러다간 그냥그자리에누어버린다。이것은 양서방이 걸핏하면잡혀잇는 가장익숙한 전술이다。

『그상좀 내노키가 그러케 힘드우』

계집은 경대아프로 가안지며 이런공손치못한 말을던지고 콩소리를 내어서 까닭모를한숨까지석것다。

허지만 양서방은 늘 벙어리다。둥 대꾸를 안한다 더구나지금은 양서방의 흥미가 딴데잇지안으나 그 흥미란 무론것도 업시

(비년이정녕 그놈헌테가지─)

이것이다 지금 그는 누어서 천구녕이난 천정을 쳐다보며이런생각에 골돌하다 그러니까계집은 주책업게스리 또

『그 누어서 그러느니 천정이나 뚤어막구려』

한다 그래도 양서방은 잠잠이다。마꼬만 빤다 그러자 어느틈에 계집은 그 야단스런 화장을 다 햇는지 바다지를 열고 옷을 가라입는 눈치다

양서방은 인젠 정말 가만이 누어서 그년이 허는대로 내버려 둘수는 업다 천정에서 눈을 떼다 슬며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린다 그리고

『어디 가?』

그것도 간신히 한마디를 던진다 을을 마음만은 지금 그의 팔소리와가티 그러케 여유가잇을리는천만에업다 그러나 어떠나하면좀 아둔하면인 계집은서방의팔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도안고

『아무델 가면 무슨 아랑곳이운』

톡 쏜다 이것은 비단 오늘만이아니다 어제도 그랫고 또그저께도 그랫고 뭐 늘 그래왓으니까 용당 오늘도 계집의말씨는 이럿게 나올것임에는 틀림업겟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그러케 틀어서 그러지 독기가 잇다。

『아아니 어델 가는셈야?』

『왜 궁금허우』

『날마다 가는데가 어듸야?』

『남야 어델 가든 마든─』

『훙』

양서방의 시선은 아까대로 또 천정으로 간다。마꼬를 한모금 힘잇게 뻘고 한번 더 훙 소리를 치고、그리고입을다문다。

계집은 일어서며 선반에서 나드리할 때만 꺼내 신는 힌고무신을 끼내들드니 향 호기잇게 문을 밀고 댓돌 아래로 나려선다。

이윽고 대문 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박게서 아래우멍으로 손을 디밀어 고리를 거는 소리가 나드니 곳 계집의 발 소리는 점점 멀어젓다。

양서방은 아까대로 손 하나 까딱 안하고 누어서 눈을 지긋이감아본다。

(저 연놈이 대체어서만나나─)

양서방은 그것을 모르니까눈을 감아도 답답한건 마찬가지다。

눈이 오라는지 바람 소리가 제법앙칼지다。

넓모래가 五十이니까 양서방도자기팔팔다나 다 산 셈이다。열아홉살 되든해 봄에 그야말로 아무 생각업시、서울이 고태도 제 공장수원보다는 살기가 모두를 낫다는 바람에 허겁지겁 뛰어올라와서 그해부터 일련거를 낀 것이 오늘까지니까 양서방은 정말이지 고생에 저젓고 가난에는 더욱 익숙하엿다。

먹게되면 먹고 또 그러지못해서 굶게되는 날이면 그대로 굶고、양서방은 그날그날 살아가는것에 유달리 정을 먹지안앗다。

春川邑大和町 朝鮮料理元祖 大興館 藝妓 金翡翠 池蓮紅 金明月 韓仙月 尹彩玉 鄭順子 楊柳色

春川新浦螢石鑛事務所 鑛主 李相稷 京城府上往十里町二八九

春川郡西面新梅里 藥酒濁酒 西成釀造組合

春川郡西面安保里 春一釀造社 主 具仁書

春川郡泉田市場 泉田釀造場 主 秋光燁

賀正

春川郡東山面朝陽里 朝陽酒造場 主 趙運植

春川郡北山面內坪里 內坪釀造場 主 金東河

江原道高等官食堂

朝鮮金融組合聯合會江原道支部 春川金融組合 春州金融組合

江原道春川邑昭陽通三丁目 春川電氣株式會社

春川郡北山面 蒼成金鑛 鑛主 崔永安

華川郡下南面啓星里 兄弟螢石鑛山事務所 鑛主 金奎奉

春川邑大和町二丁目一四三 辯護士 丁明燮法律事務所 事務員 柳冀恒

春川郵便局 春川稅務署 春川專賣局 春川刑務所

東內面職員一同

春川郡廳

春川邑本町一丁目 英木商會 李範來

江原道知事 金時權

道立春川醫院長 松井虎雄

江原道警察部長 山村正輔

芝村公立尋常小學校 羽淵木兵衞

春川邑 書籍文房具 北星堂本店 北星堂支店

內坪公立尋常小學校 神田橋三茂

東內公立尋常小學校 植田利明

春川邑長 瀧澤誠

泉田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錦山公立尋常小校 職員一同

春川 絹織綿布商 株式會社 第一商會 電話二二七番

春川商榮會

春川金融組合長 村上九八郞

春川邑大和町二丁目 春川酒造株式會社

春川邑花園町一丁目 無名氏

江原殖產株式會社

春川邑本町二丁目 朴稚鍾商店

春川 江原道土木協會

春川郡北山面 內坪郵便所

北山面職員一同

鷹峯道有林事業所 職員一同

春川公立學校長會

春川郡史北面新浦里 新仁釀造場 主 崔承道

李載昇

纛島

京城府昌信町四四二 京城軌道株式會社 電光二二九六九 二二九五〇番

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 會長 古川阪次郞 專務取締役 櫻井小一 京城出張所長 鈴木靖

高陽郡纛島面廣壯里一八九 貸遊船 廣德商會 主 李德善

京城市外西纛島里一五九ノ一 穀物貿易 新炭卸賣 象委托業 山島一精米所 主 李慶夏 電本③三八八六番 振替京城三二二七番

高陽郡纛島面廣壯里 穀物 肥料 食鹽 柴炭 貿易 委託 廣興商會 主 崔翊在 電本二五三八・振替京一八八〇二番

京城市外西纛島里 柴炭商 李奉龍

京城市外西纛島里 區長 李承源

高陽郡纛島面廣壯里 水上伐木柴炭 委托都散賣商 余麟聲

京城府外纛島(中央) 三五商店 電話本局(1)六六八四番

京城府水道課纛島水源地 喪中欠禮 谷口淸三郞

高陽郡纛島面廣壯里區長 材木商 朴有英

京城府外西纛島里 果樹苗木栽培販賣 山田鶴太郞

纛島郵便所長 河原田甫

京城府外東纛島里 城東醫院 孫点祿

京城市外西纛島里四六三 新炭卸小賣商 崔化允 電本取次五二六七番

京城市外東纛島里 廣濟藥房 主 韓明寬

京城市外西纛島里 精米業 益昌精米所 主 金益洙

京城市外西纛島里一七二 穀物貿易 委托販賣 正友精米所 主 盧興鎬

京城市外東纛島里 精米業 金永濟 電本取次二〇六七番

京城市外西纛島里 天一酒纛島分工場 主 張元永

京城市外東纛島里區長 纛島消防組小頭 柴炭商 李範相 電本取次二〇六七番

京城市外西纛島里 喪中欠禮 洪慶國

京城府水道課纛島水源地 喪中欠禮 清山源吾

京城市外東纛島里四九九 綢緞布木 食料雜貨 永信商店 主 林興澤

京城市外西纛島里 柴炭 穀物業 文雲益

京城市外西纛島里 京東精米所 電話本局②二〇六七番

京城軌道會社 纛島遊園地江岸 貸遊船 二－三 漢江丸 主 中西龜松

京城市外西纛島里 柴炭商 李奉山

東海面事務所 面長 林炳殷

固城郡下一面 面協議員(無順) 金基秀 崔文煥 姜益守 裵大垠

東海漁業組合 組合長 山本理壽 理事 千枕局

固城邑 道會議員 李甲用

固城郡 郡守 盧台植

固城郡學校長會

慶南固城邑 漢一藥業組合

固城邑 商事株式會社

固城漁業組合 理事 金東燁

固城邑 東華醫院 醫師 權五寬

固城邑德仙里 李相鳩

三山面豆布里 大德鑛山 專務取締 文白根

三山面米龍里 李漢玉

京城市外東纛島里區長 纛島消防組小頭 柴炭商 李範相

固城

永縣面蓮花釀造場 主 黃鏞熙
三山面三峰釀造場 主 李弘大
三山面豆布釀造場 主 徐正吉
東海面外山釀造場 主 崔載玕
東海面壯佐釀造場 主 朴辰浩
東海面龍亭釀造場 主 卓瑥鉉
大可面松溪釀造場 主 諸戊用
介川面明星釀造場 主 金應濟
介川面淸光釀造場 主 朴聖秉
東海面外谷釀造場 主 金炯武
馬岩面章山釀造場 主 許淳
馬岩面頭湖釀造場 主 金祀琪
巨流面銀月釀造場 主 李震秀
固城邑德仙釀造場 主 洪基贊
固城邑月坪釀造場 主 金炯奎
下一面春岩釀造場 主 金占祚
下一面龍台釀造場 主 崔汗鎬
下一面松川釀造場 主 崔燦鎬
下二面德明釀造場 主 趙且植
永縣面鳳鉢釀造場 主 白同基
永吾面永大釀造場 主 姜在淳

固城邑 邑議員 文性律 李瀅權 李判洙 李萬奎

馬岩面章山里 學校評議員 許洪道

三山面面事務所 面長 李起在 外職員一同

下一面鶴林里 崔載顯

介川面北坪里 玉泉寺

會華面二德里 面協議員 朴翼鎭 同上 都寧塾

巨流面事務所 職員一同

固城邑 各種고무靴 都散賣 商 李在權

東海龍門水利組合 組合長 李釆甲

固城邑日日工務所 建築請負業 裵萬斗

固城邑 (新藥) 公醫 洪健 永東醫院 電話三八番

固城產業組合

固城邑長 朴南極

馬岩面事務所 面長 許濬

固城邑 朝陽堂 主 金龍浩

固城農業倉庫 金慶漢

馬岩面章山里 許瑠水

固城邑新月里 金昌船

下一面事務所 職員一同

下二面沙谷里 崔洛穫

下二面靈鷲寺 主持 朴景玉

下二面事務所職員一同

下二面沙谷里 面協議員 崔斗韻

大可面松溪里 李福千

永吾面永大里 金文祐

永吾面事務所職員一同

介川面事務所職員一同

介川面淸光里 朴梏遠

介川面鳳岩里 金夏斗

會華面龍明里 李福洙

中華料理 會華面背屯里 錦陽館 主 金鉉鏞

會華面事務所職員一同

會華面背屯里 藥草賈 乾材都散賣 主 許洪濟堂

東海龍門水利組合 金在年

東海面甘西里 李次甲

固城邑 大昌旅館 主 金旅初

固城邑 三星堂乾材藥房 主 崔洛敦

固城邑西外洞 肥料、石油、雜貨 學用品一切 金相鎬

固城邑 和信連鎖店

固城邑魚市場通 山吉商店

固城邑 日用百貨 金鐵基商店

三山面豆布里 區長 金在榮

三山面屛山里 面協議員 徐炳奐

三山面豆布里 面協議員 鄭逸都

下二面德明里 振興會長 鄭李興

大可面萬川里 許宗七

永縣面鳳鉢里 姜太雄

永縣面鳳林里 振興會長 尹誠鎬

永吾面蓮塘里 振興會長 河鍾燦

介川面佳川里 振興會長 崔式林

九萬面臥龍里 學校評議員 李鍾洙

米穀商 九萬面孝洛里 元日

九萬面孝洛里 面協議員 李愚部

九萬面臥龍里 面協議員 李香洙

會華面背屯里 天元堂乾材藥房主 崔任鐘

會華面背屯里 布木商 洪禹護

會華面背屯里 李相五

東海面內谷里 面協議員 鄭在桂

東海面外谷里 面協議員 李淳日

東海面甘西里 面協議員 崔鍾得

東海面楊村里 學校評議員 朴泰勳

東海面龍亭里 面協議員 崔圭福

東海面甘西里 學務委員 朴永甲

東海面章基里 田井重

固城邑 裵富雲

固城邑 布木商 辛今植

南平

羅津郡南平面五峯里 南平金鑛 朴成夏

城津

城津商工會議所議員(順序不同)
夏目十郎兵衛 金鳳後 全庸約 金子勳次郞 黑田直三郞 里井德三郞 萩原寬 野崎恭助 北川俊一 金弘燮 李華植 金麟瑞 上田龜太郞 南守 古市安平 金聖濬

城津旭町 高級仕立 流行洋服의源泉 春田洋裝店 主 金昌興

日本高周波重工業株式會社 城津工場

原木各種 城津營林署

城津旭町 德濟醫院 醫師 弓恩德 前金堤宇醫院改稱 電話二二二番

城津旭町 朝鮮料理 樂永樓 松月樓 主 李賢淑

大丸百貨店 金常根

城津旭町 合名會社 城津精米所 金聖濬 朱昌植

城津港旭町 三省洋行洋襪工場 主 呂鍾漢 電話特一一三番

城津驛前 高級寫眞 大池寫眞館 電話四二三番

城津郡守 平野清

城津商工會議所 會頭 夏目十郎兵衛 理事 山田茂實

城津邑長 吉嶺栢

日本工業合資會社 城津出張所

城津警察署長 久竹春重

城津郵便局 職員一同

城津 金弘燮

城津旭町 金明夏製材所 電話五〇八番 電話二四一番

城津本町 食料雜貨商 丸金本店 地方部 小賣部

城津旭町 共濟醫院 電話四二〇番

城津幸町 合名會社 金在洙商店 社長 金性洙 支配人 李恩順

中央醫院 康亨哲

城津自動車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山不佐太郞 常務取締役 山名正雄

城津木材商組合

城津港旭町 貿易商 昌盛商店 電話三五七番

城津 濟衆醫院

城津旭町 信榮商會

城津旭町 金相質

城津驛前 金齒科醫院

城津港 綿絲布商 順信商會

城津旭町 和洋百貨 榮澤商會 朴成南

城津旭町 和洋百貨 敬信商會 薛昌基

城津旭町 カフエー 城津會館 主 金泰植 電話五二四番

カフエー 金剛 主 趙二得 電話五〇四番

開豐商會 李洪根 電話一一五五 一一九番

城津本町 高級洋酒 和洋料理 松屋食堂 吉田三郎

朝鮮咸北城津港 綢緞綿布直輸入商 德成利 電話一三三番 電略(ト)又ハ(トク)

城津旭町 明信고무商會 趙在信

城津旭町 土地家屋賣買紹介業 金炯贊

城津灣漁業組合

城津金曜會

城津旭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城津 トラヤ帽子店 申在德

城津 漢泉醬油釀造所

城津 木炭販賣組合 組合長 黑田直三郎

城津驛前 慶北紙物商會 主 金道日 電話五二三番

城津旭町 內外米穀雜穀商 金德商會 金舜德 電話特三一九番

城津邑旭町 私立普信小學校 電話四一一番

咸北道立城津醫院

城津本町 朴在默商會 電話三六七番

城津本町 中央鐵工所 池昌英

城津驛前 鶴文堂印刷所 電話特三一八番 私書函第三六號

江景

忠南江景中町八八ノ一 延壽堂藥房 主 裵榮繡 電話三三番

群山府榮町 綢緞布木商 群山商會 主 金鎭哲 主務 李利範

江景本町 絹織物綿紗布 江景商會 電話二〇九番

江景中町 和信商會 主 朴錫圭 電話一〇四番

湖南線江景邑中町 海陸物產業委托貿易 一山商會 電話一七九番

高相俊

忠南道會議員 姜永植 裵榮春 西島寅吉

江景邑錦町 金容琦 電話五三番 金容奎 電話二八番 金容元 電話二三八番

湖南病院 江景醫院 中央醫院 三光醫院

江景黃金町 閔丙周 尹相信

江景 石本盛治 同 中原計正 同 伊賀倭治

江景邑北町 閔丙台

論山至誠堂醫院 醫師 金憲植 電話一八番

日本生命大田出張所 橋本憲一 權壽男 趙重基

江景邑中町 スピートミシン朝鮮總配給所 東亞ミシン商會 振替京城七七二八番 電話一三番

光石面 世道面 豆磨面 望城面 筏谷面 恩津面 職員一同

謹賀新年

江景驛前 ㊀天一運輸合資會社 代表 金炳允 電話六六番

江景公立商業學校 同 實科女學校 同 南町小學校 同 中町小學校

扶餘郡草村面阜坪里 精米業 池在九

江景邑大和町 諸機械修繕專門及酸素熔接鐵工一切 江景熔接所 主 文鳳鎰

湖南線豆溪驛前 合名會社 鷄龍酒造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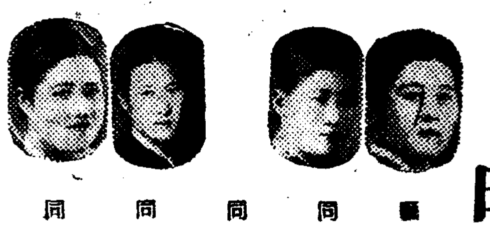
湖南線江景 大田地方法院江景支廳指定鑑定 土地測量代書一切 江景測量事務所 主務 林敎承 內務部 鄭寬亨

論山郡恩津面文廟直員 金蘭洙

江景邑大和町 黃圭煥精米所 電話七〇番

江景 片倉生命湖南總代理店 李桂山

江景邑西町 明月館 電話一八八番



藝妓 李明洙 同 姜蓮花 同 朴三守 同 金花英 同 鄭桂心

論山 花月 旭日館

朝鮮料理 大成館 電話一四八番

江景邑本町 永道洋服店 主 俞永植

江景邑 金容漢

論山郡夫赤面龍山里 沈相承

忠南江景邑本町八五 朝鮮紙及洋紙貿易商 三益社

京城府三清町三五ノ三 喪中欠禮 鄭大圭

豆溪郵便所長 崔鍾仁

江景邑中町 東洋旅館 電話一八六番

江景邑中町 東一堂藥房

司法書士 金容錫 電話(取次)一八六番

江景邑中町 蔡奎行商店

中央ミシン商會 南鮮木工場 主 金敬默

江景邑南町七五番地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群山支店江景出張所 電話五五番

江景 稅務署

忠南自動車運輸株式會社 江景營業所 電話一五五番

江景朝鮮酒酒造組合

江景中町 合名會社 壽星堂藥房 電話五一番

江景邑 繁榮會

江景勞働組合

江景邑黃金町 扶餘旅館

江景邑大和町 向上質屋 主 金潤永

論山郡城東面內村里 李斗熙

江景大和町 共信材木店 電話一七五番

江景 土曜會

論山郡城東面內村里 面協議員 黃熙壹

論山郡豆磨面立岩里 辛晚植

龍安面大鳥里 金東烈

龍安面大鳥里 金陊煥

忠南江景大和町 新江洋靴店

城東面院尺里 趙九煥

江景中町 李殷國

論山郡江景邑驛前 朝鮮旅館 李周榮

江景 綢緞布木 忠南商會

論山郡湖村 剛庵農場

論山郡江景邑大和町 布木商 崔炳善

朝鮮湖南線江景邑中町 滿洲特產 飼料雜穀業 金基東商店

論山郡江景邑旭町 崔潤權

江景邑中町 ㊅中央運送店 尹炳天 電話一三番

論山郡皇華面鳳洞里 金基豐

江景驛前錦山里 天主敎會 金訓政

石城面十字街 共和精米所

江景黃金町 永保南鮮農場

江景邑本町 平和自轉車店

論山郡江景邑 株式會社 江景魚菜市場 取締役社長 尹吉重 支配人 方翼煥

江景黃金町 米穀雜貨 金公平商店

江景邑大和町 大昌藥房 陳昌玉

論山郡江景面大和町 江景食堂 鄭今福 電話五七番

江景大和町 永進紙物舖 朴判萬

豆磨面石谷里 鄭世萬

新都內 上帝敎總本部

新都內 林基昌

江景黃金町 李鍾和

大同社江景支部 支部長 白童春

朝鮮忠南江景邑中町 ゴム靴ズック靴卸小賣 藤村商店 電話三五番

論山郡江景邑旭町 合名會社高橋精米所 代表社員 高橋茂兵衛

江景邑西町 錦江旅館 尹誠重

江景邑西町 宮本材木店

江景 黃義亮

江景邑西町 シンガーミシン江景分店 主任 姜錫璜

錦町 李鍾河

論山邑本町 曺星煥

江景中町 栗崎時計店 電話一五一番

論山郡恩城面新興里 金東元精米所 電話江景一八九番

江景中華新民會

恩城面茂形里 白南奎

豆溪驛前 日新商店 鄭智永

忠南土木社主任 任福淳

朝鮮料理 天增屋 崔甲成

江景中町 金容植洋服店

江景邑錦町 鄭淳瓚

世道面佳增里 姜信喆

江景 朴炳九

金剛山電鐵線昌道驛前 中國朝鮮料理 滿月館 主 李淑子 客室靜潔 設備完全

昌道

燒酒藥酒 昌道釀酒場 電話一三番

金剛山電鐵線昌道驛前 穀物貿易 籾摺精米 信昌商會 電話二〇番 振替京城二三三二一四番

金剛山電鐵線昌道驛前 開發昌道鑛業所 請負業 飲食店 張文石

金剛山電鐵線昌道驛前 濟世醫院 尹鍾世

義興

義興十五日會

義興産業組合長 高應根

義興邑內 高慶壽

古老面事務所 職員一同

石城面□門里 俞甲植

江景榮町 禹聖甫

論山郡龍安面 黃河宗

論山郡恩城面內村里 金東球

江景不二農場 北川久之助

江景邑北町 米穀商 李昌雨

世道面靑浦里 林謙善

江景邑本町 紙物商 權五吉

江景郵便局郵愛會

蓋尺里 趙東旼

江景 李文錫

江景邑 米穀商 鮮一商會

連山驛前 穀物商 金容斌

連山驛前 司法書士 崔榮範

金化郡昌道里 昌道幼稚園

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 昌道電燈係員 柳忠烈

金剛山電鐵線昌道驛前 丸八運送店 李殷弼 電話一五番

金剛山電鐵線昌道驛前 鐵原藥房支店 主 李富珪

金剛山電鐵線南昌道驛前 開發昌道鑛業所 請負業 崔善俊

山城酒造場

軍威郡古老面 裵錫珪

華水酒造場

軍威郡友保面 釀造物產工場 主 朴亨祚

府制實施도 五週年 懸案解決에 邁進

大田府에서 豫算計上

第五小學、典當舖、魚菜市場府營等

【忠南支社發】 상공도시인 대전부는 금년으로써 부제실시제오주년을 마지하게되엿는데 이기회에 부시설의 전반적 정비를 도모하고 금년도예산편성에 예의착수하엿던바 시국관계로 급격한 예산팽창은 할수업스므로 예산편성에잇서서 합리적방침을취하여 다년간의현안이던 제오소학교신설, 부영전당포설치, 어채시장매수부영등 계상에 주력하기로하고 예산까지 계상하엿다는바 그계획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魚菜市場買收

종래 대전부내어채시장은 영리회사의개인경영으로되여오던것인바 수만부민의 이익을위하야 이번에부터 부의관간에서 그부영화를 절규하여왓스나 예산기타 여러가지관계로말미아마 어떠갓 그실현을보지못하엿던것인데 부당국에서도 금년도에는 기어코 어채시장을 실현시키기위하야 어채시장 매수예산을 사, 오만원 계상한 모양이라고한다

一、府營典當舖設置

대전부 사만인구중 약그칠할이 세민인데 그들세민금융기관의 하나인 공영질옥의 설치가 요망되여 왓든 현상에비하야 부당국에서는 예산까지 계상하엿슬뿐만아니라 총독부의 보조까지 밧기로 내정되어 실현될모양이라고한다

一、第五小學校新設

대전부내에는 현재 본정(本町) 영정(榮町) 욱정(旭町) 대흥(大興)의 사개소학교가 잇서 아동 천백여명의 아동을 수용하고잇스나 부내 취학아동의 약사분지일밧게 수용하지못하는만큼 매년 신학기가되면 초등학교의 입학난을 야기하야왓는데 이를 다소완화하기위하야 제오소학교 신설이요망되여오든터로 부에서는 어역 금년내에 실현시킬것으로 내정되엿다고한다

盜掘黨掃蕩期必

各地에離散隱身中의殘黨들도 近近大大的搜索開始?

【春川】작년십이월육칠 량일간에 미리 간수백의무장경찰을동원시켜 금광산 중심도굴당의 대검거를 행하여 일대 검거선풍을 전개하고 계속하야 상당수의명을 체포하고 계속적으로 소탕을계속하고잇는데 이중에 이삼백 수배의 도굴당은 부근광산 철도공사거리 토목공사장과 공해안 여비공장등에 잇다고한다 예이산하엿다 그중에는 주모자격들도 끼어잇스므로 도경찰부에서는 관계각경찰서에 급 일제히 노동시장의 대검색을하라는 명령을 발하엿슬뿐더러 어경과 노처럼 도굴당중 중대범인들도 상당히체포되리라고하는데 그치세는 극히주목을끌고 잇다고한다

特別檢索隊苦衷

嚴寒凍傷者가續出

【春川】강원도금광산중심으로 도굴당(盜掘黨)을 박멸시키고저 지난달조에 대검거를 하엿다함은 주지의사실이거니와 강원도경찰부에서는 위를이여 활동중인데 보안과장경부(警部)를 대장으로한 특별검색대(特別檢索隊)는 회양군내금강면신포리(淮陽郡內金剛面新浦里)에 수천길에 야간수사를 감행하여오든바 영하삼십여도의 극한으로인하야 판구대장(坂口隊長)과 우진(宇津)부도(副島)양순사는 극히중한동상을입엇고 앞으로도 속출할형편이므로 도의경찰에서는 일재 입원가수를 파견하엿는데 그들의 고심은 예상이상이라고 한다

盈德支局後援의 姉母擲柶盛況

【盈德】경북영덕군유내사립영덕유치원(盈德幼稚園)은 당지유지들의 열성으로 설립되여 수십년의 역사를가지고 이래만흔영재를 배양하여오거니와 거금십오년전부터 매년신춘을 당하면자모위안척사대회를 개최하든바 연례에의하야 금년에도 지난오일오전십일시부터 동유치원강당에서 본보영덕지국후원하에 제십오회 자모 위안 척사대회를 원장강신옥(園長姜信旭)씨개회사로 개최한바 정각전부터운집한 자모로 동백(紅白)양군의 면전과 좌기입상의개인전이잇서 백군(白軍)이우세하엿다는데 동오호네시경에 산회하엿다고한다

一等李春福 二等韓壬生 三等金惠玉 劉大石 金必權 梁順愛 四等金鳳三 崔學明 金貴述外五人 五等裴春玉外九人

思想展覽團募集

【盈德】경북영덕군파 영덕경찰서에서는 오는 십일일부터 동삼오일까지 대구에서 개최하는 사상전람회(思想展覽會)에 참가하고저 군내 각기관과 기타 각층을 망라하야 관람단원(觀覽團員)을 모집한다는바 시국이시국인만큼 누구나 한번 볼만한 전람회이며 내왕차임도삼할내지 사할의할인과 기타 만흔 특전이잇다고한다

郵便局員의 失態

【城津】그어느관청보다도 친절과공손한 태도를 신조(信條)로 하는 ... 대 어린아니라 최근성진우편국원중에는 일반에게대하야 여러가지점에잇서서 공손치못한 행동이 비일비재하야 일반의비난이놉다 ... 자기자리로 돌아가는자는 우편저금을 하려왓던 통장(通帳)을내여주지 안흐므로 그제서야 순번이밧귀인줄을알고 속히 하여달라고하엿스나 통장을 모(某)는 불구하고 닥치는 폭언을 참지못하야당장 전기게의 비행을 문책하려고 하엿스나 여자인만큼 그리지도못하고 집으로 도라왓다고 하는바 어리하야 집에서 다시생각하매 너무나 분함을 억제할수업서 저금을 도로차즈려고다시 우편국에 달려가 저금을 불려(拂戾)를 청구한즉 그때에야겨우 이삼명의계원이 잘못함을사과하므로 그냥 도라왓다고 하는데 ...

商業學校의實現과 自農創定制再檢討

條件嚴格으로細農엔畫中餅

黃海道篇

商業學校設置問題

교육열이 날로노파지는것은오늘의조선인사회의 한특색으로서 피교육자의 태도도 그러하거니와 사회일반인사의관심도 절실하야 교육에대한관심이 전반적으로 진작되는것은 기쁜현상이라아니할수업다 그러고 아직도 조선의교육기관은 너무도부족한느낌이 잇는 터로 사학(私學)이 그중대한지위에서잇는만큼 민간의힘으로써 교육기관의 신설계획과 어느통을이르키는것은 당연한일인동시에 또한 경사로운일이다

우리는 이러한의미에서 수년전에 교육해주의공노자로 볼수잇는 해주정내소학교장(海州正內小學校長)유운영(劉運榮)씨의 상업학교설립기부금으로서의 삼만원희사와 모씨의십만원기부설을중심으로하야 해주상업학교설립기성회(商業學校設立期成會)를 조직하고 활동을개시하야 그설치가문제 표면화하엿슬때 교육해주와 문화황해의장내를위하야 그의완성을 축복하엿든것이다 그러나 십만원 기부설은 전하든 모씨로부터 그기부금에대하야 근거업는"데마"라고 부정하고 그기부를중개한 모 지사는 사실이라주장하야 그당시 한회제거리가되엿섯스나 어 예정기부금의 동요로 말미아마 아연실색한 동기성회에서는 문제의기부설의 진부조차 밝히지못한채 하로이틀 보내는 가운데 자연 해소과정을밟게된 것은 섭섭한일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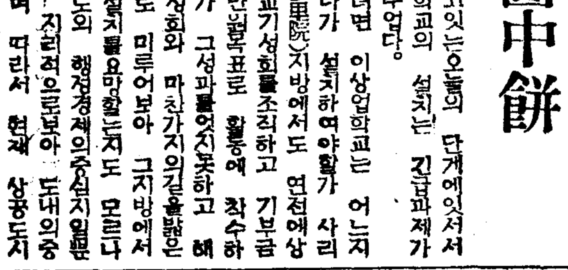
여와가티 상교기성회가 아모 성과를맷지못하고 스사로 소멸된지 수년동안에 황해도의수도 해주에는 일천여만원 자본금의 조선세멘트회사를비롯하야 오백만원자본금의 조선 ... 회사 중 ... 와 이화약회사방계의 중외광업(中外鑛業)회사 도는조선세멘트방게의 해주철공소(海州鐵工所)등대회사가 설치되고그바게 모모유력회사의 설치설은전하는터로 공업도시화하야 상업방면에도 일대번영을이르켜 해주를 중심으로한 황해도는상공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추고잇다

어상마가튼 수년내의 상공도시화한 도내의실정과 사위의환경은 해주에현재중에있던 상업학교의설치의 실현을 일층필요로 하고잇다 즉황해도에는 해주에 동중학(東中學)과서중학(西中學)이잇고 재령(載寧)에 명신중학(明新中學)과 안악(安岳)에 안악중학이 잇스며 사리원(沙里院)에 강송농업(農)학교와연백(延白)에 용동농업학교등이잇스며 해주에신도부터 공장의 기술자양성을 위한직업학교(職業학교)가 신설되고잇스나 상업학교는 하나도업는현도서 이미상공도시화하엿고 아프로도 상공도시로서 대비약이 발전이 약속되고잇는오늘의 단계에잇서서 상업학교의 설치는 긴급과제가 아닐수업다。

그러면 이상업학교는 어느지방에다가 설치하여야할가 사리원(沙里院)지방에서도 연전에상업학교기성회를조직하고 기부금 이십만원목표로 활동에 착수하엿다가 그성과를엇지못하고 해주기성회와 마친가지의길을밟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지방에서도 설치를요망하는지도 모르나 황해도의 행정경제의중심지일뿐더러 지리적으로보아 도내의중앙자며 따라서 현재 상공도시로서의면모를 가추엇고 사위의 환경이 상공업에적당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해주에 세워야할것은 움직일수업는 사실로 되여잇다。

이상업학교의 설치요망은 관계당국의숙고와 이에따르는지적 기대하여서만 그실현이 가능할것은 물론이나 우리들의 문화적향상을위하야는 사재(私財)를 앗기지안는등영과 의무감(義務感)을 가진선각자들의 분발에의해서만 용이할것이다.

물론 오늘의 사유재산제도가 잇는한에잇서서 사재(私財)를 게안흠은 가족의행복과 향락에 쓰기는쉬우나 이러한 공공사업에 쓰기가 말로는 용이하지만 실천에잇서서 어려운것은사실이나 실로 해주를사랑하고 문화향상을 꾀하려는 거룩한뜻에서 실천에 밋치는점도로 사재를던지여 기성회를 다시 부활시켜 선년도에 상교설치를 실현하기를 해주인만도민과함께 바라는 터이다.



自作農地設定事業의檢討

황해도 지방의 소작농면적은 경지면적 오십오만구천정보에대하야 그약칠할인 삼십오만팔천정보를 차지하얏스며 농가호수에잇서서는 소작농호수는 농가총호수 이십삼만구천호에대하야 그오할구분인 십사만일천호를차지해서 농촌경제의 불안정을 자아내는 중요원인의 토지겸병자작농의 전락에따르는 소작농의 증가는 해마다 급격한진전을보여 농촌경제기구의 위축을 가저오고잇다.

그리하야 도당국에서는 총독부지령에의하야 소극적토지정책인 농지령(農地令)제에서 한걸음나가 적극적으로 지주와 밋자작농의 소작농으로의 전락을방지하고 소작농에게 농지(農地)를주고 자작농지의경영을지속시키므로써 사상의개선을 도모하려는목적에서 소화칠년부터 십개년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대장성으로부터신용한저리자금을어더 자작농가를설정해오고잇다.

그러면 어자작농설정사업은미곡이출제(米穀移出統制)의 일면이요 농촌구제시설의 일부로하야 세농계급에게 농토를대부하야 농촌산업의지위를 도모하려는 농업대부사업과함께 농촌산업경제와 중요관계를 가진터로서 우리들의주목을 끌고 잇는바 그자작농가설정에 편입되는농가의구비조건은 무엇인가. ... 빈농중에서는 그혜택을밧지못하는형편에잇다 즉 자작농설정농의구비하여야 할조건을보면

1、現在小作人으로서 小作을耕作하는者
2、農業經驗도 잇는者로서 購入地를 스사로 耕作할目的으로써 勤勞하야 農業者가되려는者
3、思想穩實하야 農村의中心人物이될 素質을가진者
4、現在耕作에 從事하야 自作農地의經營을 完全히할수잇는者
5、思想이堅實하야 農事에精勵하는者

등의까다로운 조건이잇서 무지한빈농에서는 어떠의 구비조건을 어렵지안케 통과하야그 설정농가에 편입되기가 어려운 ... 농촌에잇서잇는 어느정도까지 생활의기반이 잇는농에서만 이용하는 실정에잇는것이니 어로써 이자작농설정사업이 ... 목적인 사상경제의완화 안정을 ... 구할수잇슬까. (계속)

(海州特派員安應植記)

紅燈街에流血劇

술군과카페黨對戰四名重輕傷

城津署에맛告訴까지

【城津】정초 섣진 홍등가의현루국상업새벽 한시쯤 시내욱정(旭町)금강(金剛)이란「카페」에서 도소주에 얼근히 취한술군과「카페」주인사이에 말다툼이 생기어 급기야 육박전으로 변하야 주인측의 응원으로는 한「쿡」이 손님한사람을 무수 난타하엿다는것이 도화선으로 쟁웅의 불꽃은 드되어 제지하려든 손님수명과 구경군수명에게까지 뻐치어「쿡」에서일대접전을 연출하다가 형세는 점차로 확대되여 손님들도 쫀쫀로 모르다가 마침내 싸움터를 바그로옴기여「카페」층중원대로는 여급십여명까지 총동원하야 서로 개되여 교전(交戰)수십분동안에 서로 퇴진(退陣)하야 일단락을 지엇는데 이 우습업시는 몰수업는난투극으로 말미아마 쌍방에모두사람식의 중경상자를내여 손님측의 중상자 옥정모씨 회천신모(申某)는 강천의원(江川醫院)에「카페」측중상자 김모(金某)는도립의원(道立醫院)에각각 입원치료중인데하회에는 경찰에다 쟁웅의흑백을 가려달라고 서로측에서 모두 성진서(城津署)에다 고소를 제기하엿다고한다

防共「마ー크」 爲先二萬個配付

【春川】방공(防共)사상을 적극고취하기 위하야 도고등과에서는「마ー크」이 만개를전도내 관개자와 희망자에게 배부하기로 되엿다고한다

新正劈頭의騷然相

鰒中毒 一家族死傷

正初統營邑大和町의慘劇

【統營】통영읍 대화정(大和町)박문희(朴文熙)씨는 지난일일오전한시경 복어(鰒魚)내장을 주어다 국을끄려 세가족이먹고 중독이되여동일오후 두시경에 도준과 그의아들 경오(敬五)는 절명하엿고 도준의처도 방금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七十老人凍死

나무하러갓다가 貧寒이나흔慘變

【伊川】생활에 저주를바드며가난과싸우다가 영하삼십여도되는 극한에 때일나무가업서서 칠십이세의노인이 나무를하러갓다가무참이도 어러죽엇다는 인정애화 주인공은 황해도금천군서천면시변리(金川郡西泉面市邊里)이순보(李順甫)라는 노인으로 그는그날의생활에 조쫄리여 정문치자를거나리고 날마다 가난과싸호던바 지난삼일에 아침밥도먹지 못하고 부근산으로 나무를하러갓다가 점심때에도 오지안코 해가저도 도라오지아니하므로 동리사람들이 출동하야 차저본결과 사일아침에 이노인은 ... 서쪽으로 ... 눈속에서 ... 엇다고한다

少年이火傷

【平原】평남평원군한천면 ... 지난 ... 소년이 ... 화상을입고 ...

龍岡地方에火災 二戶三棟이燒盡

【龍岡】지난사일오후여덟시경 평남용강군해운면구산리(龍岡郡海雲面 ... 里) ... 의집에서 발화하야 때마츰 부는 북풍으로 그집은가장 ... 이웃집에까지 연소되여 ... 두집세동이 전소되엿는데 ... 손해액은 ... 원가량이라는데 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한다

獻金美談

【保寧】보령군 대천(大川)에서 ... 이라는 문방구상을경영하는 ... 씨는 시국이 전시하인이매에 편히안저서 과세를하고 연회를 폐지하고 돈오십원을 국방비로 헌납하다고일마전 보령경찰서를 통하야 납부하엿다는데 일반은 그의특지를칭송한다한다

廣島縣協和會 宇品支會發會式

【廣島】 수일전부터 문제중에잇던협화회우품지회(協和會宇品支會)는 겨우준비가 완성되여 일마전 우품경찰서회의실에 대표이십여명이모여 발회식에대한준비를마치고 그후우품소학교강당에서 ...

利柳市場問題로 道에까지陳情?

住民들郡當局의態度에不滿

【忠北支社發】충주군이류면대소원리(忠州郡利柳面大召院里)에잇는 시장은 수백년의오랜역사를가진 우수한시장으로서 현재그시장내에는 이백여호의 주민이 살고잇스며 그면의 세입의팔할은 동시장으로말미아마 수입을 보고잇는터로 실로 그면에잇서 대소원시장은 면민의 생명선이라 하고잇다 그런데 최근그시장에서 약삼정가량떠러저잇는 대소원의 주덕면신양리(周德面新陽里)에 무허가시장이설치되게되여 어런문제는 ... 의사할문제라하야 ... 대소원시장에서 ...

朝報案內

木苗樹果 京城府外纛島 久次米園藝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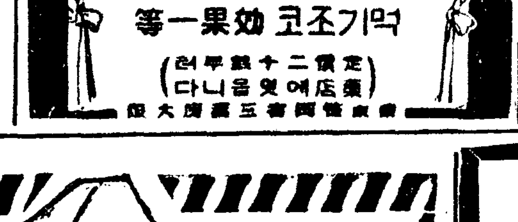
會計社員募集 地方鑛業界人歡迎履歷書送 京城府黃金町一ノ二三六 ...

社員急募 外交 ... 經驗者 ...

募集外務員 新藥에經驗이 ...

西鮮商會

百日咳에 ステコ 먹기로조코 効果一等 定價二十錢均一 各藥店에잇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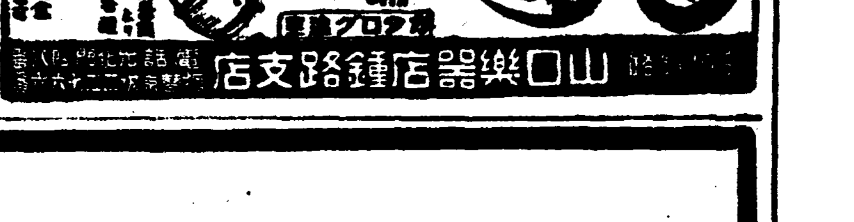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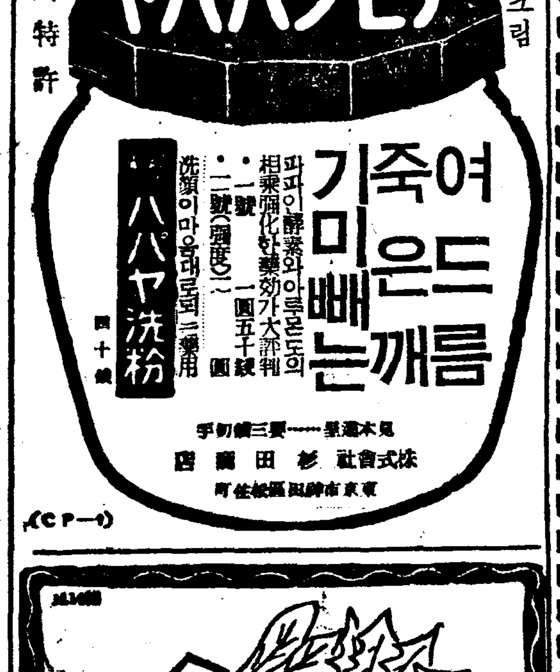
桃屋의果實罐詰 品質第一 フルーツ 白桃、黄桃 枇杷、西洋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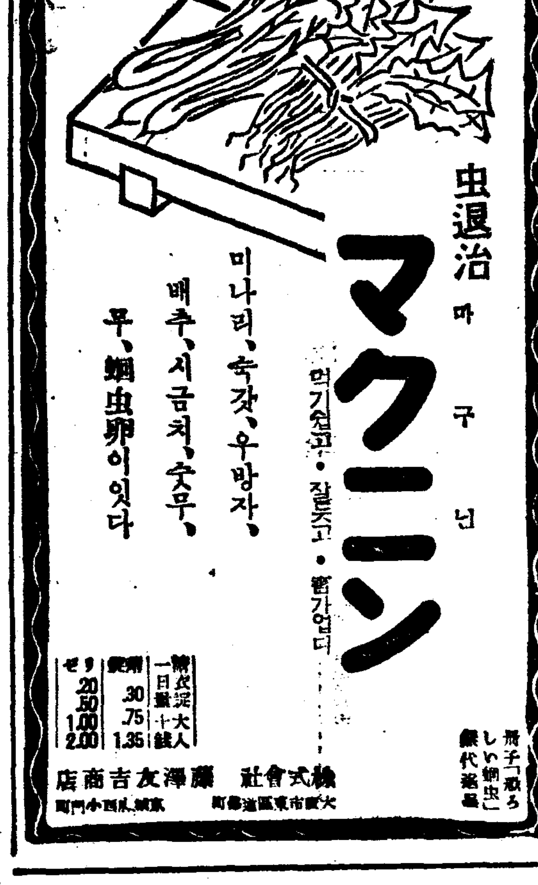
各地有名電氣商會에有함 東洋乾電池 朝鮮関城府北本町四六 東洋乾電池工業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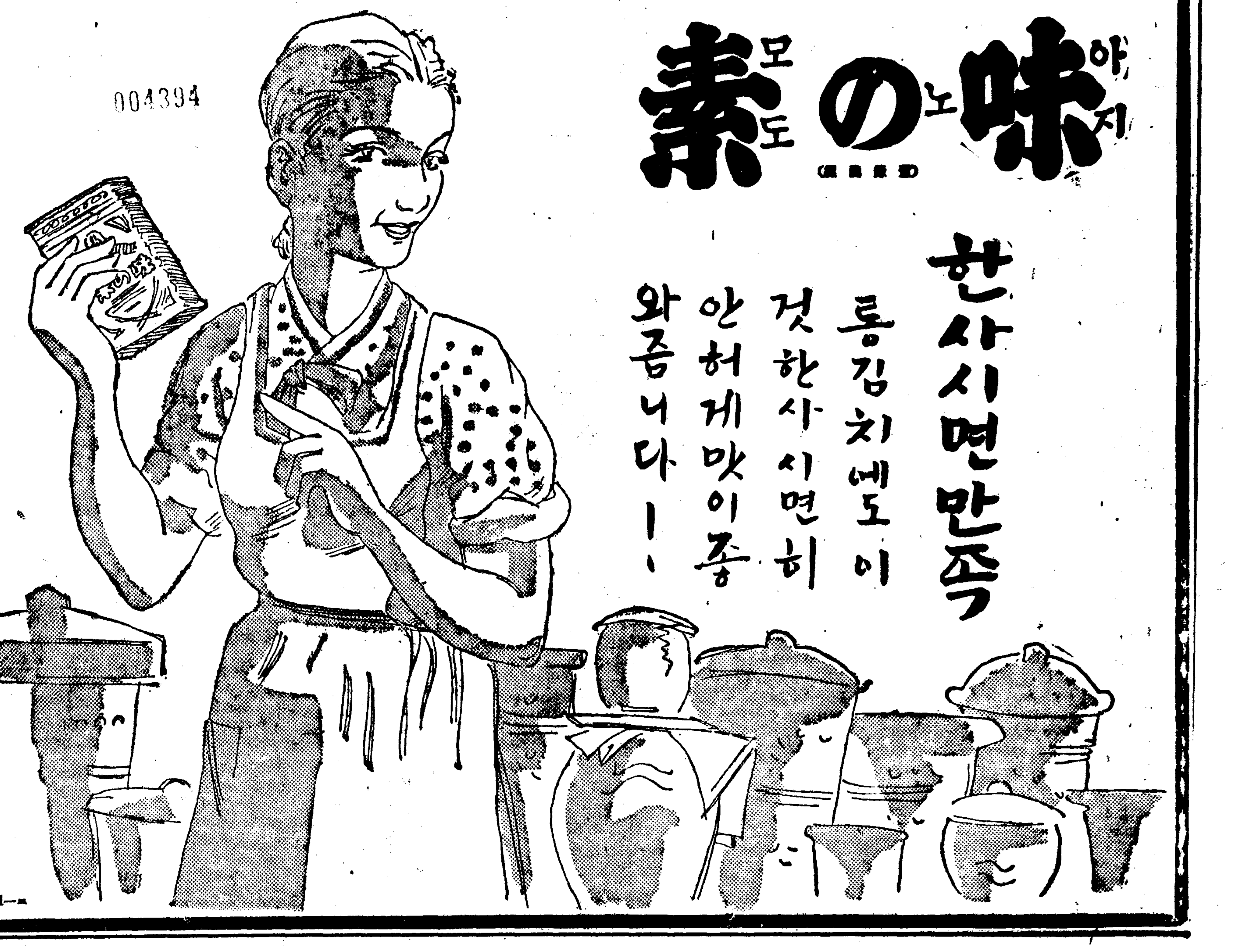
胃腸을튼튼케하고 身體를强壯케한다 肥滿劑 小川藥院

ギター マンドリン アウイオリン 手風琴 山口樂器店鍾路支店









對內地貿易增進

—入超도二割九分이나加重—

出入十六億、入超二億

昨年中

昭和十三年中對內貿易은 移出 七億一千五十三萬四千圓 移入 九億二千百二十六萬九千圓 合計 十六億三千百八十萬三千圓 四千圓으로 移入超過 二億一千七十三萬四千圓으로에 하야 前年對比 移出一億三千八百八萬九千圓(二割四分) 移入一億八千五百八十五萬五千圓(二割五分)合計 三億二千三百九十四萬五千圓(二割五分)의 增進을보이고 入超額도 亦是 四千七百七十六萬六千圓(二割九分)의加重이다 即 如左하다 (單位千圓)

昭和十三年對內地貿易額

區別	昭和十三年	同十二年	增加額	同上比增加率
移出	七〇五、三四	五六七、四四五	一三八、〇八九	二四%三
移入	九二一、二六九	七三五、四一三	一八五、八五五	二五%二
合計	一、六二六、八〇三	一、三〇二、八五八	三二三、九四五	二四%七
入超	二一〇、七三四	一六二、九六八	四七、七六六	二九%三

다음에 重要貿易品의 內容을보면 移出에있어서는 生絲綿價低와 對米輸出의 不況을反映하야 三百十二萬圓을 激減하고 其他硬化油、大豆、鋼『세멘트』等의出減이 적지안헛스나 移出의 大勢를 支配하는米는 前秋의豊作에 加하야 市勢高로 年初來未曾有의 殷盛을呈하야 出增額은七千九十六萬圓(三割一分)에達하엿스며 또石炭은佛印產無煙炭의輸入制限에因하야 西鮮產無煙炭의需要를 喚起、四百九十九萬圓(七割四分)을 顯示重石鑛等의 礦工業界의 活況으로 四百二十六萬圓(二割六分)을 필푸는 北鮮製紙의 生產力增大로 三百六十四萬圓(六割五分)을乾海苔는 南鮮地方作柄의 好況으로 二百四十七萬圓(六割一分)을 朝鮮乾鹽魚는南鮮魚況의 豊漁와 市價高로二百四十二萬圓(二割四分)을 牛는內地에있어서의 馬匹不足에 因하야 農耕用으로서의 需要旺盛으로 二百四十二萬圓(五割三分)으로 牛皮는軍需充當增大와 市勢高로 二百二十九萬圓(八割一分)을 各各增加하고 其他肥料洋紙 黑鉛、含金銀、粗銅及粗鉛等의出荷도 記錄的好調를 보이엇스므로 移出貿易은 空前의 殷盛을 呈하야 前年對比一億三千八百萬圓(二割四分)을 增大하엿다 一方移入에있어서는 棉花는 前述과 如히 直輸入增加와 統制强化로 二千八百七十七萬圓(九割一分)을 急減하고 綿織布는 內地에있어서의 製造及配給統制로 因하야 八百八十萬圓(二割…)을…生고무도 棉花와가튼 事情으로 五百九十八萬圓(九割)其他 米『세멘트』等의 入荷가적지안케 不振을보이엇스나 他는一齊 好況을 呈하고 就中生產力擴充資材及製產原料品의 入荷가旺盛하야 石炭은 八百二十六萬圓(六割九分) 肥料는 七百八十五萬圓(三割七分)木材는 七百三十一萬…用生計用品의 部類에있어서도如上 農產其他輸移出貿易의 好調에 依하야 地方農漁村의 實需가擴張된바 各種纖維物을 除外한 各種纖維物에있어서 二千七百十五萬圓(五割一分)紙類에 있어서 五百八十二萬圓(三割)肌衣에 있어서 三百八十五萬圓(二割七分)을 一般物價高를 關因으로하야 移入價額의 膨脹이 顯著하엿스므로 移入貿易도 亦是稀有의 巨額에 達하야 前年對比 一億八千五百八十五萬圓(二割五分)을 增大하엿다

十二月의輸移入 最高記錄示現

輸移出도자못旺盛

昨年十二月中의 輸入及移入額은 過去의 最高記錄이든 昭和十二年四月의 輸入 一千六百八十五萬圓及 移入九千四百七十五萬圓을 凌駕하야 輸入一千七百一萬圓 移入九千八百六十六萬圓에 達하얏스며 또 本年十一月의 輸出一千七百五十四萬圓 移出七千二百九十二萬圓에 比하야 前年十二月의 輸出二千九十萬圓 移出八千二百十八萬圓에 다음가는 最高位를示하얏다

十二月貿易槪算 (單位千圓)

	本年	前年
對外國貿易 輸出	一七、五四一	二〇、八七
輸入	一七、〇二一	一六、〇一〇
合計	三四、五六二	三六、八九七
出入超過	出超 五二〇	出超 四、八七七
對內地貿易 移出	七二、九二	八二、一八
移入	九八、六六	八八、七九一
合計	一七〇、八八	一七〇、九七
出入超過	入超 二五、七三	入超 六、六〇三
對外國及對內地貿易 輸移出	九〇、四六三	一〇三、〇五
輸移入	一一五、六八七	一〇四、八〇一
合計	二〇六、一五〇	二〇七、八五六
出入超過	入超 二五、二二四	入超 一、七五

本格的商品飢饉

民需一層制限

統制를加重하면서再檢討!

經濟第一線總動員

지금까지는 武力戰中心이엿스나 本年度부터는 드디어經濟重點의 第一戰線에 總動員되여資本 物資兩面의進出은『建設에』『建設에』로 猛進撥을 行하게되엿다 經濟戰線의 動員은 곳商品界의 動員이라고도 할수잇다 十三年 晩春以降의 商品市場은全혀需給、價格、雙方으로부터의統制의 旋風이 일어난 感이잇섯다 그리고 昭和十三年末까지에는 一段그基本的인 骨子와形態는 具備된것가티 보이엿다 그러나 무슨物資든지 이計畫과 實行이 相當히短期間에 行하엿스니만치 實際運用에 잇서서 各種의적지아니한 不備와 矛盾이 從來의 自由經濟時代에서計畫統制經濟에의强力한 觀念의轉換도 纖入하야 한己 過渡的現象으로서나타나 此間에 큰混亂과 混迷를招來한것가탓다 此等의 統制務態規도 一段의出議한 今年은此等의再檢討 是正期에 當面하엿다고看做치안흘것인가 一方如斯한內面的新段階와並行하야 重需資材確保와 國際收支均衡을 中心으로한 物資統制는 今年부터는이외에 長期建設資材確保의 一條가 더하기때문에統制緩和는커녕 一段加重되는趨勢에잇서서 어것이今年의 商品界가나아갈 方向을 決定할것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旣往의統制 各種의矛盾이 是正되면 될조록 軍需、民需의 需給統制도 本軌道에 오를것으로 이가든無用이 排除될을따라서 一面建設에의 新目標에對하야 考慮할順序가 되므로 民需向에의 物資供給은 보다더 抑制될것이 考慮되며 即每年더해가는 一般市場의『商品飢饉』은 이에輸을지어 深化하게된다 이에備한 政府의 低物價政策은『商品飢饉』이 濃化하믈따라서 强力하게 될것이오 所謂 標準價格의 役割은 益益加重되여갈것으로 보인다 그러데 自由時代는 生產費、輸入、採算等이 各商品의 市勢基準을 形成하고 잇든것이 商品飢饉과함께 無軌道化하야 需給統制品의 關取引이 市勢의基準以上인 高價로 賣買되며 實際市場에 微妙한 作用을 하는 것이 아직도 根絕지 안는現狀이다 要컨대 統制一段强化에 依한『商品飢饉』에 當面하야 一般市場이 어떤程度의 統制陣을死守할것인가 或 그러치못한때는『金錢보다도物에의』人氣가 大體 어떤形式으로 나타날것인가 어려한點으로 本年의 商品界는 多事多端하고 또 看過키어려운 一年이라하겟다

小運送免許制

新年度부터實施

小運送業免許制度의實施는 鐵道局의準備調査가 豫想以上으로 順調로게進行되어 一部에는 年度內에施行하리라는 觀測도잇섯스나 新豫算이必要한事項、監督所管等의問題도잇서 結局新年度初로될豫定이다 그리고 小運送業의所管은 從前의鐵道의職制로보면 監督課에歸屬할것으로보이나 關係하는것은 가장營業課와密接하므로 營業課의 所管中에 小運送係의設置를 보게될것으로 이것이 小運送界의統制의根本으로될豫定이라한다

朝鮮銀行 預金貸出

모두五億突破

鮮銀의本支店을通한 十二月預金貸出勘面末은 아즉 各支店으로부터의 報告가未着이므로 判明치안흐나 最近의狀態는 預金五億二千萬圓 貸出五億六千萬圓으로되엇든 또本店勘定은 期末現在預金六千七百萬圓 貸出一億三千六百萬圓이라한다

鮮銀天津支店

日租界로移轉

天津의 新情勢에 對應하야 鮮銀에서는 天津支店의 營業所를 移轉準備中이든바 天津日本租界 旭街三番地로 移轉하고 一月五日부터 同所에서 開業하엿다 橫濱正金銀行 天津支店도 同樣日本租界內로 移轉을 完了하얏다

徐州出張所開業

鮮銀의 徐州派出所는 開設準備中이든바 一月一日부터開業하엿다

漢銀兼二浦支店開業

漢城銀行에서는 黃海道兼二浦에 支店開設을 準備中이든바 드…

過燐酸統制

中央組合改組

硫安中心의 肥料統制는 新年부터 過燐酸化成肥、石灰窒素、調合肥料等에도 範圍를擴大하야 配給統制에入키로되엇는데 이와呼應하야 朝鮮의肥料中央配給機關으로 舊硫安中央統制組合을 改組擴充키로 決定하고 먼저過燐酸에對하야 當業者間에 準備를進行中이다 이것은 舊硫安中央統制組合을 肥料統制組合으로 包括範圍를擴大하고 從來의硫安을 硫安部로 하고 過燐酸部를 新設하는것으로 新過燐酸部의『멤버』는 目下農林局과 民間에서 協議中인바 大體如左한八社乃至九社로될豫定이다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三井物產株式會社▲三菱商事▲片倉肥料▲住友販賣店▲多木肥料出張所▲木下商店▲東山產業의 入社와 日產化學이다 이어서 石灰窒素部(窒素肥料、三井物產)化成部、加里部、調合肥料部도 結成할豫定이라한다

本店行員 白昌植 命兼二浦支店支配人代理 本店支配人代理 千葉泰二郞 命兼二浦支店支配人 如左히決定되엿다 同十八日開業하기로 되엿는데 諸般의準備가完了되어 來

朝鮮產漢藥輸出

滿洲狀況調査開始

朝鮮內漢藥業者는 朝鮮產漢藥의對滿輸出에 多大한 關心을가지고 機會를 엿보고잇든바 朝鮮貿易協會에 左記事項의 調査를依賴하고 基本的 調査事項에 依하야 本格的으로進出키로되엿다 即調査事項은

一、最近三個年의 滿洲漢藥商이 輸入한 朝鮮產藥材의 品種數量及價格等의 年度別表

一、滿支人間에 嗜好되는 藥材의品名 產地及其他形態

一、漢藥商이 購入을希望하는藥材品種一、現今滿洲에서의 朝鮮藥材의大體의市勢

一、委託業者의手數料

一、信用잇는 漢藥取引者의住所商號

一、其他參考事項

部門으로서 有力한 地步를確保할수잇슬것이라한다

朝鮮罐詰業

前途洋洋

朝鮮罐詰業의 統制機關으로서 새로히 罐詰協會의 設立을보앗는데 右協會의 結成은 朝鮮斯業의 發展上有力한 推進力이될것으로 期待되어 多角的發達과 輸出方面에의 新進出이 待望되고잇다 即新協會結成의 直接的動機로서는 罐詰材의入手難打破에잇섯스나 朝鮮의斯業進出餘地는 如左히 洋洋한것이다

一、現在若干의發達을보인것은水產罐係의 鰮加工뿐이나 이鰮加工、魚介處理에는 다시高度加工의 餘地가만흔것

一、其以外의 果實、野菜畜產은全혀處女地라고 할만한것으로 增產餘地가만타

一、從前新計畫이잇서서도技術의困難斗市場難을느기고잇든바 最近에는市場은 不安업고 技術도協會結成으로 向上을期待할수잇는等의 事情에잇다 따라서新協會의指導에依하야 새로운 產業…

鰮粕賣約高

累計百一萬俵

油肥聯의 鰮粕賣約高는 昨年四月以降十一月末까지의 百一萬七千三百十三俵이오 十一月二十日부터三十一日까지의 旬計는 五萬九千八百五十五俵로 委託直賣合한 各道別集計는 如左하다 (單位俵)

咸北	旬計	四、二八〇
	累計	四二四、二〇七
咸南	旬計	二〇、三三
	累計	四〇九、〇八〇
江原道	旬計	三三、四六〇
	累計	九六、七三五
慶北	旬計	一七
	累計	四六、七二〇四
慶南	旬計	二、一九七
	累計	五九、八五五
本旬合計		五九、八五五
累計		一〇一七、三一三

移出港在米

百十四萬石

米穀調査=十二月三十一日現在

移出港의 在米高는 百十四萬三千百五石(政府米를除外)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十九萬八千六百九十八石의減少를보이엇다 即 (單位石)

	十二月末	前年同期
正租	三四七、九五一	七〇六、三五二
玄米	四四七、五九	四五四、七三四
白米	三三、四五一	三三八、〇九六
內地米	一三八	一
臺灣米	一三、八六	一〇六
合計	一、一四三、一〇五	一、三四二、〇〇三

또各港別內譯은如左하다

	十二月末	前年同期
▲釜山	一七三、三四	一八六、〇八四
▲馬山	四六、〇〇六	八三、〇〇〇
▲麗水	三三、八八七	六八、九七二
▲木浦	一六六、七〇七	三三九、九六
▲群山	三五、二三四	一〇六、七三四
▲江景	二九、三四〇	五九、三二六
▲仁川	三二〇、九六八	三一一、九二三
▲海州	一四、〇六八	七九、四〇三
▲鎭南浦	一三六、八三〇	一三四、八六六
▲元山	四一、三四〇	三六、八三一
▲浦項	三一、九四三	四四、五三〇

北朝鮮出荷增

朝郵二隻備船

北鮮諸港의滯貨一掃를爲하야 朝鮮郵船에서는 馬來丸(七千噸) 五險山丸(五千四百噸)을 年末年始에걸처 臨時配船하야 一擧에滯貨의消化를 圖謀하엿는데 北朝鮮各港은 特產出廻로 出荷가 다시增調에들어와잇다한다

一、鰮油、粕이各各高價로되어 賣惜物이 一齊出荷를보인것

一、北滿、東滿의 出貨가本格化하고 特히奧地物이出廻한것

一、北朝鮮로-칼產品의 出荷도 船繰의 順調로出現하게된것

〇日本마네增資臨時總會 日本마네사이트化學工業에서는 來…

簡易保險契約高漸增

昨年末三億四千萬圓

朝鮮簡易生命保險의 昭和十三年度末現在 契約數는 內地人四十萬八千四百件 保險金額 九千十四萬圓 朝鮮人이 百四十三萬二百件 保險金額 二億四千九百七十七萬圓 合計 百八十三萬八千六百件에 保險金總額은 三億三千九百九十一萬圓에達하엿다한다

府第一會議室에서 第二十一回朝鮮簡易保險事業諮問委員會를開催하고 昭和十三年度 第二回融通配定額의 內定을 할터이라한다

簡保資金融通

委員會開催

遞信局에서는 簡保資金의 融通申込額이 相當額에 達하엿스므로 來十日午後一時半부터 總督…

京城電氣一割配

京城電氣는 十二月末下期決算을 맞음하고 本月二十六日東京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할터인데 下期는 電氣瓦斯의擴張이 豫定대로 進捗되지안헛스나 電車收入은 未曾有의 好績이므로 一割配當据置에는 支障이업스리라한다

寸鐵

▼……十二月一日을期해 物資의 國勢調査斷行、國民의消費生活에 要하는數量과配給을調査하리라고

▼……事變第三年、東亞新秩序建設第一年인今年은 物資統制가一層加重되는때문 民需制限이徹底케될것을覺悟함일

▼……産金勇戰隊出動、增産計畫의萬全을 講究할도必要커니와 中小金鑛業者에게試掘權을줌도焦眉의急務

▼……興亞의봄은 먼저映畫館劇場街로부터 東京의 興行街는 六年來의 好景氣라나 서이것을『興亞景氣』라고나할가

▼……月給五十圓에서跳躍 四百圓、社長의二倍、勳臣官級職工이東京에잇다고 當年十九歲의英雄은 伊藤金右衛門이란 熟鍊旋盤工 軍需景氣萬歲!

株式 再突入後引返

今日의市勢【七日】

一月二十日 午前十一時부터 府民館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過般의五倍增資의完了를報告

前場往來 今朝는東阪低를보고 東新一圓六低인一四一圓五에低落寄付後 依然東新中心으로低價에는押目買가잇서 二十圓關門을回復한後 跛次나關門을往來하다가 結局東新一二〇圓丁 鐘紡一四二圓二에 底堅大引 後場은例休

東新關門爭奪

今次政變에依하야 財政政策의一段强化는 難免이라는氣分으로 昨後場에는 依然東新一二〇圓臺를割을보고 近來의低價인 一一七圓九의低價로 崩落되엇섯는데 石渡新藏相은 池田藏相의 財政政策을踏襲하리라하기는하나 只今까지 池田藏相의 自由主義的要素에對하야 財界가 가지고잇던期待는 자못큰것이잇던만큼池田藏商相의 退陣을 보게된것은 株界에對하야서도 相當한影響을 미치지안흘수업슬것이다 今朝는 休日을압두고 軟派의利喰物이出現하야 東新이關門을回復키는 하엿스나 全體的基調는 依然軟派에 步가잇서보이니 이대로推移한다면 東新一二〇圓이 常態化되지나안흘가 하고보이엇다

大衆依然沈默

株式市場은 徹頭徹尾不況裏에 昨年을 보내 今年에 對한만흔期待를 가지고 新春을 마지…

市場六感

㈱……昨日後場에는 依然賣叩되어 東新은 遂히二十圓臺를割을示現코 一一七圓九의 近來의低價로崩壤 ◀때는新春이라 二十圓關門만은 保持할수잇스리라고하던 强氣의焦慮는漸加 ◀買方必死의防戰으로二十圓關門의爭奪이 自他의指標로된셈 ▲『財界의太陽』池田藏商相의退陣은 앙만해도 株界의打擊이아닐수업는모양이어지

㊥……新春劈頭의市勢、末曾有의保勢!事變第三年을 마지하는此際의 統制拘束을방는人爲的現象?▲人心이 即天이라는말에依하야 法的으로拘束한그範圍는 容易히 버서나지못할것▲그러므로 高價에는買方그自身이 먼저 警戒하고低價에는 賣方이도리어警戒하는모양인즉 大邱保合은 免치못할일▲昨今市勢가 高價殺到로부터約二十丁의 低落을 告하엿다로되엇섬 ▲『財界의太陽』池田藏商相의退陣은…짐작할수잇을것이다 이로써 朝鮮取引所의 關係者와 財界가 모두 이를…▲그러나 目前으로써 底入인것도가트나 押目買?

期米 閑散裡에少堅

前場少堅 今朝阪地二十六圓三十三錢인 二丁反落을 接하고當限은 三圓七十一錢인 昨止同樣中은三十三圓七十九錢인 二丁低로先限은 三十三圓七十九錢인 昨止同樣으로 寄付後 阪地十七八錢으로 九節十四錢까지 反落하엿다가 十九錢의突高로 押하야 九節八十四錢으로 八十二錢에 大引하엿다

低落도亦難望

新甫三月限은 三圓九十七錢의初發을最高로 今朝七十錢臺를 示한 約二十丁의反落을 告하엿다 此가低落의初步인가 또는一時的現象에止하고 말것인가를 一考하면 今回買上成績이 良好하엿슴에도 反히軟態에 傾하고 高公定米價에 接近한此際인만치買方自身이 買警戒할餘力이업고 一方으로는모든 物價에比하야 割低인米히 易進할餘地가잇다면 不在反對로 價格을叩할수업는만큼 滑落할餘力도업다 그럼으로 市勢는 當分昂騰할可望도업거니와 低落할餘望도업시 小狹範圍에서 稍稍弛하다가어떤 動機를만나서 此波紋을惹起할모양인데 此市勢에서의公定價格의 距離가 高價에는 別로 接近하엿고 低價를距하기에는 六百餘丁이나된즉 어느程度까지의 瓦落을告하기 外에는 硬軟共히 用武할餘地가 업슬것이다 그럼으로 今日이아니면明日이라도 一場反落을 待하야買狙하려는 光景으로 賣買全히閑散한狀態이다

仁川正米割高

接近正米의 事情을 綜合하면 都會地는 軟弱하고 產地는反히 强硬하야 農家及共販의 態度가 얼마나 强固함을 알수잇다 此는 生產者로서의 當然히 取할方針으로 集散市場의 米價도 自然히 產地에 追隨하는모양인데 朝鮮內의 各地米價를 對照하여보면 仁川市勢가 群木兩地보다 三十錢의 割高를 示하고잇다 第一次買上을 實施할때에는 群、木…

國債低落【東京電話同盟】

環境不透明으로五分利는續落하야 四分當限五錢小戾이오 外債는活氣가업시 佛貨十錢低 米貨六分半은三十錢高로强勢하야 四分利價는 意外로頑强하야 二回分利債는 五錢乃至十錢下押이엇다 四分一〇三、〇〇▲佛貨四分一九八、九〇▲十九年物一〇三、一〇 甲號五分一〇三、五五▲一回

株式市場

株式投資에 向케하는것도 新春의株界의 一課題일것이다 此處에 한가지의 活路가잇지안흘가? …株式投資의 安全性을 感하게할것이아닌가 그러나 一方으로는 投資에 …오히려 …此方面에 新生面을 開拓하야株式投資家에게 …

朝取取引員 京城明治町一丁目 昭和證券株式會社 電本代表長二三六

正米 買物薄의不勢

京城軟勢

內地入荷杜絕과 續되는 各地淸算의 軟調로買氣不振인데다가 全朝鮮 第一의 割高를보이고잇는만큼 高價出現은期待薄이여서 休日을압두엇스나 市勢는五錢低로 軟化되엿다 ㊉精良二等三三、五五 一等白米三三、七〇

仁川不勢

定期의不勢와內地入荷不振인때이라 一般으로市價는 顧勢하야 應募側의物色買가 多少잇슬뿐으로 이러다할 만한 買物이업서 市勢도五錢低로軟調이엇다 ㊉精良二等三三、三五 四等三三、〇五 一等白米三三、七〇

釜山軟調

아직도正初氣分이 남엇슴인지 賣方이 모두消極的이어서 休日가튼 閑散場面이고 唱價도 各地淸算의 軟調를보고五錢乃至十錢低唱이엇다 ㊉銀坊主三等三三、七五 四等三三、五五 一等白米三三、七五

大邱保合

應募箇落米의賣物은 繼續하야出廻되나 昨夕부터內地入荷가 多少잇서 移出側의物色買氣로 市勢는淸算低임에도不拘하고 前價同樣으로 低堅保合이엇다 ㊉穀良二等三三、一〇 四等三三、〇 ㊉一等白米三三、二五

群山軟化

新年을마지한 初賣去來旺盛으로 淸算低임에도前價를 維持하든市勢는 買上應募漏落米가 相當히만흐리라고 豫想되여 淸算低도잇서 多少의處分賣物이 散見되여 十錢低로 軟化되엿다 ㊉銀坊主三等三三、二〇 四等三三、四〇 一等白米三三、七〇

木浦不動

依然히內地入荷杜絕로 市中은新材料를 기대리겨우 買方이모두 傍觀態度이어서 少口의去來가 多少잇슬뿐으로 場面은閑散하고浦…

株式 東亞證券 賣買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海外經濟 六日

比較	前日
[illegible]	[illegible]

銀行券 六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illegible]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illegible]	[illegible]

正租

地名	一等	二等	三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朝取主要株取組 ◆實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illegible]	[illegible]

京城 證券部·期米部 仁川 吉村取引店 福

物價

◆滿洲粟貨騰 滿洲粟等滿洲粟은 連日續騰되엇다

◆交織物高騰 交織物市勢는 在庫關係로 如左히變動을 하엿다

今日財界七日

◆米 ◆株 ◆商品

[illegible]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仁川期米 ◆朝取期米賣買高 ◆群山期米 ◆大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各地期米

[illegible]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六一一 六九五 六二二

綿絲 ◆大阪綿絲

棉花 ◆大阪棉花

人絹 ◆各地人絹

生絲 ◆橫濱生絲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illegible]

商品市勢 七日

▲果實類

梨(早生赤)	三貫五	[illegible]
同(今村秋)	三貫五	[illegible]
同(晚三吉)	同	[illegible]
密柑四ツ合		[illegible]
紅玉(鎭南浦)	四貫	[illegible]
同(大邱)	三貫	[illegible]
國光(大邱)	三貫	[illegible]
同(鎭南浦)	四貫	[illegible]
金柑	一貫	[illegible]

▲海產物

生明太	上品一尾	[illegible]
乾明太 新(元山一駄)		[illegible]
同(西湖津同)		[illegible]
同(退潮同)		[illegible]
同(前津同)		[illegible]
鹽古同魚	百尾	[illegible]
生刀魚	百尾	[illegible]
乾大口(元山)	百尾	[illegible]
同(北海道)	百尾	[illegible]
鳥賊魚	一貼	[illegible]
新生大口	一尾	[illegible]
明太子	一桶五貫	[illegible]

▲菜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府會社調査)

▲農產加工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穀用叺及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肥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家畜飼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農藝藥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家畜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畜產協會調查)

京城物價 六日

▲白米 ▲本綿 ▲交織部 ▲毛絲 ▲炭類 ▲燃料 ▲石油 ▲砂糖 ▲鐵物 ▲木材 ▲牛皮 ▲染料 ▲塗料 ▲紙物

[illegible]	[illegible]